

2021년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북한여성사회연구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코로나 시대, 북한여성의 미래: 위기 or 기회

- 일 정 : 2021년 8월 24일 ~ 25일
- 장 소 : Zoom 웨비나
- 주 최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단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법인 Center for Korean Women & Politics

프로그램

8월 24일(화)

- 13:00-13:10 **개회사**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축사 :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
- 13:10-14:10 **Session I 북한여성의 정치적 위상 변화**
 - 사회 : 김수암 (통일연구원)
 - 발표(20') : 정대진 (아주대)
 - 토론(40') : 강혜석 (서울대),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14:30-15:30 **Session II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 변화**
 - 사회 : 이희영 (대구대)
 - 발표(20') : Bronwen Dalton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토론(40') : 최은주 (세종연구소), 정은이(통일연구원)
- 16:00-17:00 **Session III '공화국 립스틱'으로 본 북한 여성문화**
 - 사회 : 박희진 (동국대)
 - 발표(20') : 전영선 (건국대)
 - 토론(40') : Tomoomi Mori (Setsunan Universty, Japan),
 이지순(통일연구원)

8월 25일(수)

- 13:30-14:30 **[대담] 영화 <장마당 세대> 시청(20') + 대담(40')**
 - 사회 : 권금상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대담 : 영화감독 박석길 (Liberty in North Korea),
 정시우 (연세대), 김지은 (Radio Free Asia), 정유나 (방송인)
- 15:00-16:00 **[북한인권 리포트] 장마당, 현장의 목소리**
 - 사회 : 조은희 (숭실대)
 - 발표(20') :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 토론(40') : 정은미 (통일연구원),
 Andrew Yeo (Catholic Univ. of America)
- 16:30-17:30 **[종합토론] 코로나시대, 기로에 선 북한여성**
 - 사회 : 서 호 (전 통일부차관)
 - 토론 : 현인애 (이화여대), 조정아 (통일연구원),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Justin V. Hastings (University of Sydney)

개 회 사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은주입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올해 <북한여성사회연구 국제학술회의>를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겨울 갑작스런 코로나 팬데믹의 발발로 인해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제2회 때에는 대면회의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만 올해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전 세계는 아직도 패닉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없이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발생했고, 하늘길이 끊어졌고 경제가 위축되고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 북한여성사회연구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북한여성의 미래 : 위기 or 기회” 로 잡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북한여성의 삶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 국내외의 석학들의 연구결과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는 2020년 제1회 국제학술회의의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1회 북한여성사회연구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는 “북한사회의 변화, 여성, 시장화 그리고 문화” 이었습니다. 이는 시장화를 중심으로 북한 여성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국제학술회의는 제1회 국제학술회의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던 시장화로 일어났던 북한여성들의 삶의 변화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떤 위기과 기회에 직면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대북경제제재 장기화에 코로나 팬데믹이 겹쳐지면서 새로운 경제위기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과거 김정일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국면이 장마당 여성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인지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측면에서 현재를 훑아보고,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8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제2회 북한여성사회연구 국제학술회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논문발표와 토론만이 아니라 <장마당 세대> 영화를 주제로 한 대담프로그램과 장마당의 목소리를 정리한 북한시장브리핑 그리고 <코로나시대, 기로에 선 북한여성>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의 세션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북한여성사회연구 국제학술회의의 목적은 국내외 북한 연구자들의 교류를 촉진하여 북한사회의 변화를 여성의 위치에서 조망하여, 변화의 내적 동학과 변화의 함의를 찾는 데 있습니다. 이번 제2회 국제학술회의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온라인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정춘숙(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코로나 시대, 북한여성의 미래 : 위기 또는 기회>를 주제로 온라인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 주최를 위해 고생하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모두 감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남한, 북한 모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북한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대북경제제재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의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북한 여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413일만에 남북 연락망이 복원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길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시는데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민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주신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모두 몸과 마음의 건강 챙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김선욱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먼저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2021 북한여성사회연구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사회와 발표, 토론을 맡아주고 계신 우리나라와 호주, 일본, 미국의 북한 북한 전문가 여러분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주제에 관심갖고 화상으로 함께 하고 계신 참가자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지난 30여년동안 여성의 정치참여와 세력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북한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국내외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고민해왔습니다.

또한 탈북 여성과 청년들의 민주주의 역량을 키우고 남북 여성들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는 이러한 북한여성문제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이룬 성과에 대해 큰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이렇게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킨 김은주소장님께 특별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남북 민간 여성 교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1년 남북의 여성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토론회를 열었던 귀한 경험이 우리에게겐 있습니다. 이 만남은 남북민간교류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후 여러 국제행사에서 남한과 북한의 여성들이 만나 위안부 문제와 인도적 대북지원 등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였고, 2002년 10월에는 ‘남북여성통일대회’가 금강산에서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90년대부터 2000년대초까지 수차례 이화여대교수로서 연변대학에서 김일성 대학 교수들과 함께 만나 학술행사를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남북 여성의 상호이해와 소통은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남북통신선이 복원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북한 여성과 북한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오늘의 학술행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상황으로 북한 사회도 북한 여성의 삶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남북한의 여성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남북한 사회의 여성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날을 고대하면서, 이번 학술회의가 그 시기를 앞당기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1 북한여성사회연구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자료집에는

1일차에 진행된 Session I, II, III의 발표문 및 토론문과
2일차에 진행된 [종합토론]의 토론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Session I

[발표문]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 변화

정대진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I. 머리말

북한에서는 왜 강반석, 김정숙 따라하기는 있는데 고영희 따라하기는 보이고 있지 않은가?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은 우상화되고 있는데 비해서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는 현재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고지도자의 어머니를 우상화하며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역할을 규정하고 전파하던 북한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최고지도자의 어머니라는 과거의 인물을 호출하여 현재의 여성상을 규정해나가던 선대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는 김여정이나 현송월 같은 최고지도자의 직계 여성혈통이나 최측근이 직접 활동하며 새로운 유형의 여성상을 만들어나가며 정치적 위상을 점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특히 북한과 같은 권력세습정치의 연구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 변화를 논함에 있어 이 점에 주목하며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왕조국가에 가까운 독특한 정치형태에서 여성의 정치적 위상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특히 최고지도자의 어머니 따라배우기 변천과정과 북한의 여성동맹조직의 리더십 변천과정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고영희 우상화 작업의 부재가 의미하는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김여정과 같은 직계혈통 여성 리더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과도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북한에서 여성들은 공직참여를 통한 정치참여, 여성들의 충원의 통로, 정치단체인 여성동맹의 활동 등을 통하여 정치적·사회적 위상을 형성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여성정책은 해방 직후 사회주의 국가건설 과정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고 여성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정비되어 왔다. 하지만 형식이 실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북한의 여성정책은 이상적인 제도의 완비에 비해 전통적인 남녀차별과 여성의 불평등이 함께 존재하는 이중성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봉건적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여성해방에 방점을 두었으나 이것이 오히려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기제로 변질되었음을 기존 연구들은 비판하고 있다. 남녀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토지개혁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사회진출을 보장하고 각종 사회제도의 개혁을 통해 가사노동과 양육의 사회화를 추진하여 여성의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을 촉진시켰으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요받는 현실은 잔존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요와 함께 사회적인 동원도 함께 강요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기존 연구들은 지적한다.

이들 연구들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여성의 지위도 조국의 부강과 직결된 충성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의 행복이 곧 여성의 행복이며 강성대국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3대 세습체제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강조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가부장적 사회주의 지배양식은 여성의 전통적 역할과 현대적 역할을 모두 강조하며 조국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논리로 승화 발전되어 왔다고 평가된다.

가부장적 사회주의의 강조 속에서 여성은 다시 봉건적인 가정에 굴레에 귀속되는가 하면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노동계급, 사상교육의 담당자로도 역할과 지위를 규정받으며 삼중고를 겪고 있다.¹⁾ 북한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위상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숫자나 양적인 평등지수로 일반화할 수 없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토양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체제라는 세습정권의 특수한 정치형태를 이론적으로 정리해보고 그 안에서 여성의 정치적 위상을 여성동맹조직의 리더십 변천과 최고지도자 어머니 따라배우기의 변화과정과 현재적 의미를 조망하며 다각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북한 세습정치의 이론적 체계

1. 북한체제와 세습정치

체제유형을 분류한 앤드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는 8가지 체제 결정요인

*이 글은 발표를 위한 초안이며 통계자료, 인용 및 문장 재구성, 각주처리 등 향후 수정보완 예정이니 참고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김충렬,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67호(2013), pp. 276-277.

을 기준으로 ①서구적 다원주의 체제(polyarchy), ②공산주의 붕괴 후 체제(Post communist regimes), ③동아시아의 정부형태(East Asian regimes), ④이슬람 정부 체제(Islamic regimes), ⑤군사정부 체제(Military regimes) 등 5개 정치체제로 구분한바 있다.²⁾

헤이그와 해롭(Hague and Harrop)은 통치체제를 ①민주주의 체제(Democratic regime), ②유사민주주의(Pseudo Democratic/Semi democratic regime), ③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³⁾

북한체제(North Korean System)란 표현은 국가, 정권, 제도 등 3가지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상기한 한 가지 유형에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체제는 전체주의 특성을 연구한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bigniew K. Brzezinski)가 규정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된다.⁴⁾

브레진스키는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을 ①정교한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존재, ②일인 독재자에 의해 영도되는 단일 대중정당 통치, ③비밀경찰에 의한 심리적·물리적 테러체제, ④라디오·신문·영화 등 대중매체에 대한 총체적 독점, ⑤무장력의 효율적 독점, ⑥중앙집권적 통제·지시 경제체제 등 6가지로 기술했다.⁵⁾

북한은 여기에 더해 3대 세습정치를 실현한 체제이기도 하다. 북한의 3대 세습정권은 절대권력 확보를 위한 정치적 행태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공익을 가장한 독창적인 주체사상, 후계자론, 지도자론 등의 이론을 정립시켰으며 이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하였다.

김일성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권력승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80년 10월 제 6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공산혁명의 대를 이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습 이외의 방법은 없으며 세습이 북한의 혁명과 인민의 이익에 합치’⁶⁾된다고 강조하고 권력세습의 뜻을 확고히 했다.

김정일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심의 후계체계’⁷⁾를 강화하였다.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30년 만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을 통해 ‘김일성의 사(私)당임을 제도

2) Andrew Heywood, *Political Theory: An Introduction*(New York: MacMillan, 1999), p.29.

3) Rod Hague and Martin Harro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an introduction*, 8th ed.(New York: Palgrave MacMilan, 2010), p.9.

4) 권오국, 『북한체제 안정성 평가와 전망』(천안: 치안정책연구소, 2019), p.17.

5)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rocracy*(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65) 참조.

6) 유석열·도흥열, “북한연구-세습승계 기도의 김일성 왕조, 당6차대회를 앞둔 사회문제, 북괴도발 30년,” 『북한』 통권 제106호, 북한연구소(1980), p.61.

7) 이기동,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 권력구조 확립의 쟁점 및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4호(2010), pp.216-217.

화 하고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후계체계 하에서도 수령의 유일 지배체제를 지속' 8)시키면서 김정은으로의 세습 기반을 조성하였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자신이 당 제1비서로,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당·정·군의 최고정책결정권자로 등극하며 권력승계를 마무리 하고 유일영도체제' 9)를 확립하였다.

2014년 3월 9일에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자신의 최측근들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선출' 10)하면서 절대 권력 공고화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같은 해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전원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김정은 전체정권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예고하였다.

1980년 제6차 노동당 대회 이후 2016년 5월 6일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김정은의 당으로 호칭하고 노동당의 최고영도자인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되어 유일영도체제' 를 공고화하면서 3대 세습을 완성하였다.11)

같은 해 6월 29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는 44년 만에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되면서 자신의 제도적 리더십을 완성했다.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스스로에게 총비서의 직함을 부여하고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신설하고 이를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1비서직에 누가 임명되었는지는 현재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단순한 행정대리인인지, 후계자인지에 대한 논의도 분분한 상태이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10년차가 넘으면서 대리인을 당규약에 규정할만큼 통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체제와 세습정치는 고도화된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체사상, 수령론, 후계자론, 계속혁명론에 근거를 둔 북한체제 고유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창시한 북한에서 유일한 국가 활동 지침이며 지도사상이다. 김일성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 한다며 인간중심을 강조한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수령론의 기초가

8) 이기동,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과 권력구조," 『국방연구』, 제54권 제1호(2011), pp.80-81.

9) 김성배, "김정은 당 제1비서의 선택과 한국의 대북전략," 『Smart Q&A』, No.2012-07 (서울:동아시아연구원, 2012), p.1.

10) 김갑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 평가," 『통일전략포럼보고서』 제55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4), p.35.

11) 이호령,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 개최의 함의와 향후 대내외 정책 전망," 『주간국방논단』 제1622호 (한국국방연구원, 2016), pp.2-3.

되는 사상이다. 그러나 자기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 아래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¹²⁾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중심명제로서 ‘모든 것의 중심에 인민대중이 있고 인민대중의 중심에 수령이 있다’¹³⁾는 논리로 요약된다. 즉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욕구가 있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반드시 수령의 영도에 의해 조직화되어진 후 역사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인민대중은 ‘노동당과 수령의 영도와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는 수령·당·인민의 삼위일체 원칙’이 도출된다. 결국 혁명투쟁이나 공산주의 운동은 계급투쟁에 의해서 달성되기 때문에 현명한 영도자 없이는 승리할 수 없으므로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적 수령의 영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수령론의 결과물은 인민대중속에서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감당하는 신(神)적인 유일영도체계를 완성하여 권위를 절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¹⁴⁾

‘계속혁명론’은 주체사상에 근간을 두고 후계문제를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문제로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후계자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즉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투쟁을 조금도 지체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그것을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1975년 3월 ‘로동계급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연설에 기반하였다.¹⁵⁾

후계자론은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이론이 아닌 부자세습에 대한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여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등장한 논리이다. 그리고 별개의 이론이 아닌 ‘주체사상과 수령론, 후계자론, 계속혁명론에 근거하여 후계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인물을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¹⁶⁾

중요한 사실은 단지 권력승계 뿐만 아니라 혁명위협을 계승하고 ‘유훈통치’를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이론들의 공통점은 김씨 왕조 유일영도체계의 명분논리와 정당성, 정통성,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기존에 존재했던 이론이 아닌 특정 후계자의 수령승계와 당의 혁명위협의 대를 이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상황과 여건에 맞게 수정되는 이론들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자신들의 세습정권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

12) 정응기,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주체사상,” 『법학연구』 제51권 제4호(2010), p.228-229.

13) 이교덕, “북한의 후계자론,”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3-13호(통일연구원, 2003), pp.4-5.

14) 이교덕, 위의 논문, p.8.

15) 이교덕, 위의 논문, p.18.

16) 이교덕, 앞의 논문, pp.2-3.

로써 두루 수용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¹⁷⁾

2. 세습정치와 여성의 정치적 위상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에서 권력 세습은 권력 승계 과정에 등장하는 위험과 딜레마를 감소시키는 방법의 하나이다. 독재체제에서 권력 승계의 딜레마는 독재자는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하지 않거나 양자 모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위험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독재자가 강력한 후계자를 키우면, 그가 권력을 찬탈하거나, 내부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해서, 둘째, 후계자에게 독자 권력 기반 구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후계자를 분명하게 뽑아놓지 않으면, 현존 통치자가 사망한 이후 무절제한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후계자는 존재해도 문제이고 존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딜레마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세습에 의한 권력이양이다. 첫째, 권력 세습은 권력 승계과정에서 현존 통치자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다른 경우에 비해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것이 후계자가 권력이양을 앞당기거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현존 통치자에게 반역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둘째, 권력 세습은 현존 엘리트 사이의 권력 배분과 기득권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만약 현 통치자 주변 엘리트 중의 하나가 후계자로 선정되면, 현존 엘리트 사이의 권력 배분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엘리트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발생하여 어느 한 세력이 몰락해야 하거나, 전체정치체제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비해 권력 세습은 기존 엘리트의 지위와 특권의 변화 없이 권력 계승을 가능하게 해준다. 권력 세습은 정권의 붕괴나 승리자가 별이는 연속적 숙청보다 더 좋은 선택이다.

브라운리(Brownlee)에 따르면¹⁸⁾ 2차 대전 이후 2006년까지 3년 이상 집권한 258개의 독재 국가 사례에서 권력 세습이 시도된 경우는 23건이고, 그 중에서 성공한 경우는 9건이다. 성공한 경우를 보면 아래와 같다.

- 1956년 니카라과의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가르시아(1936~1956)

▶ 루이스 소모사 뒤발리에(1956~1967)

17) 정종관,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 분석과 대응전략,” 『한국동북아논총』 제83호(2017), p.177.

18)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59 (July, 2007), pp.595-828.

- 1961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라파엘 트루질로(1930~1961)
 - ▶ 라파엘 ‘람피스’ 트루질로 마르티네즈(1961)

- 1971년 하이티의 프랑스와 두발리에(1957~1971)
 - ▶ 장 클로드 두발리에(1971~1986)

- 1975년 타이완의 장개석(1949~1975)
 - ▶ 장경국(1975~1988)

- 1994년 북한의 김일성(1948~1994)
 - ▶ 김정일(1994~2011)

- 2000년 시리아의 하페즈 알 아사드(1971~2000)
 - ▶ 바샤르 알 아사드(2000~)

- 2003년 아제르바이잔의 헤이다 알리에프(1993~2003)
 - ▶ 일함 알리에프(2003~)

- 2004년 싱가포르의 리관유(1956~2004)
 - ▶ 리셴룽(2004~)

- 2005년 토고의 그나싱베 에야데마(1967~2005)
 - ▶ 포레 그나싱베(2005~)

권력 세습시도는 다음과 같은 경위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첫째, 통치자가 집권당을 창시했던 경우이다. 또는 북한의 경우에서처럼, 권력 세습 당시 독재자의 권위가 당의 권위를 제압하는 경우이다. 둘째, 이미 권력세습의 선례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집권 엘리트가 다른 방법에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엘리트들은 통치자가 선택하는 후계자에 동의하며, 대체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반대로 만약 현존 통치자가 기존 정당의 선출 메커니즘에 의해 집권했다면, 권력 세습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에서 언급한 경험적 사례들을 보면, 권력 세습은 후계자가 비교적 젊고 경험도 없으며, 독자적인 제도 기반이 없는 경우에도 주변 엘리트의 지지를 받았던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1년 하이티에서 권력을 세습 받았던

두발리에의 나이는 19세, 1961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마르티네즈는 32살, 2003년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에프는 42세, 2005년 토고의 그나싱베는 39세였다. 이와 같이 젊고 경험 없는 지도자가 주변 엘리트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세습 후계자가 존재함으로써, 고위 관료들의 안전이 묵시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권력 세습의 논리에서 볼 때, 세습 후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권력 이양 과정에서 권력투쟁을 방지함으로써, 현존 상층 엘리트들의 기득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권력세습은 현존 통치자의 자연수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권력 이양에 따른 불확실성을 통제하여 현존 체제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현존통치자와 주변 엘리트들의 공동 프로젝트라는 것이다.¹⁹⁾

북한의 경우 이 공동 프로젝트에서 여성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되어 왔는가가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바이다. 선대에 존재했던 강반석과 김정숙 따라배우기와 같은 세습 최고지도자의 어머니 이상화 과정과 달리 현재 김정은의 어머니 이상화가 없는 자리에서 김여정과 같은 직계혈통이 세습정권의 딜레마를 완화하는 후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Ⅲ. 북한 여성동맹조직의 변천과 정치적 위상

1. 여성동맹조직의 역사와 개요

북한은 정권 수립 시기에 신속하게 남녀평등을 법제화하고 여성동맹을 결성하였다. 초기 민주여맹의 일차적인 목표는 기존의 봉건의식 타파다. 김일성은 “장기간의 봉건통치와 일제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사회발전이 저지당하였고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잔재가 뿌리깊이 남아있으며 모든 것이 파괴되고 혼란된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건국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며,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야하며 남녀로소 할 것 없이 전체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녀성대중은 큰몫을 담당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봉건체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북한정권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봉건잔재의 청산이 우선시되었다.

초기 여성동맹의 두 번째 목표는 여성의 국가사업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

19) 상기 내용은 박형중, “권력 승계의 딜레마와 권력 세습,” KINU Online Series 09-37. 참조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1476/1/0001447301.pdf> (검색일: 2021.7.10.)

다. 김일성저작집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성원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것은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고 부강한 새 조국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며 여성동맹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또한 북조선 민주여성동맹의 강령1에도 첫 번째로 “우리는 민주주의적 여성과 대동 단결하여 김일성장군이 발표한 20개조 정강을 그 기초로 한 조선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해 총역량을 집중함”이라고 명시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건국사업에서 수레의 한쪽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며, 수레가 잘 달리자면 두 바퀴가 다 제대로 굴러야하는 것처럼 우리의 건국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어 나가려면 남자들과 함께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정 내에 국한되어 있던 여성의 역량을 동원하여 북한정권 수립에 조직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여성동맹을 창립한 것이다.²⁰⁾

한국전쟁 시기 여맹은 조직상의 큰 변화를 겪었다. 1951년 1월 19~20일 남북 조선민주여성동맹 합동중앙위원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결정에 따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과 남한의 남조선민주여성동맹(위원장: 류영준)은 조선민주여성동맹(위원장: 박정애)으로 통합 개편된 것이다.²¹⁾

전시에 여맹은 전선지원 돌격대운동, 국가사업인 농업현물세 징수사업, 원호활동, 생산혁신 운동에 적극나섰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북한에서는 전후복구와 산업화를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업으로 여겼고,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정권 수립 과정에서 북한은 집안에 있던 여성 노동력을 사회로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1958년 7월19일 내각결정 제84호 『인민경제 각 부문에 여성들을 더욱 인입시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 여성 노동력을 광범히 인입하여 1961년까지 전 종업원 중 여성 노동력의 비율을 교육 및 보건부문에서는 평균 60% 이상, 기타에는 평균 30% 이상으로 각각 제고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성들이 사업할 수 있는 남성노동력을 점차 교체하고 앞으로 여성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부문에 추가되는 노동력은 반드시 여성으로 보충할 것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탁아소, 유치원, 공동세탁소 등의 편의시설을 확장하고 각종 교육양성기관의 여성비율도 점차 높일 것을 명시했다.²²⁾

여맹은 전후 복구재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맹 초대위원장 박정애는 20년 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김일성 일인독재체제 구축이 가속화되던 1960년대애 들어 변화가 생겼다. 박정애는 1965년 9월 부위원장이던 김옥순에게

20) 이가영, “북한 여성동맹조직 역할 변천에 대한 연구,” 『아세아연구』 제60권 3호(2017), pp.108-109.; 김일성, “현 국제 국내 정세와 여성들의 과업,” 『김일성저작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참조.

21)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 (과주: 한울아카데미, 2004), p.206.

22) 정경모·최달곤 책임편집, 『북한법령집』제4권(서울: 대륙연구소, 1990), p.298; 이가영, 앞의 논문, p.111 재인용.

위원장 자리를 넘기고, 1960년대 말 김일성의 측근 숙청시기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북한정권 수립 시기의 모든 종파와 최측근까지 정리한 김일성의 개인숭배 전면화로 인해, 여성동맹 역시 당의 근로단체가 아닌 김일성수령 개인의 근로단체로 변모하게 되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도 조선민주녀성동맹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 밑에 창건된 우리나라 녀성들의 자원적인 대중정치조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동맹원들과 녀성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한다”며 수령하의 대중조직임을 강조하고 있다.²³⁾

2. 김성애의 등락과 여맹의 위상 변화

1971년 10월에 개최된 여맹 제4차대회에서 김성애가 3대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김성애는 순안군 여맹위원장에서 1957년 중앙호위대 비서가 되었고, 김정숙 사망 이후 1963년 김일성과 결혼했다. 그 후 1965년 9월 여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1970년 11월 당중앙위 위원을 거쳐 1971년 10월 여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27년간 여맹위원장을 지속했던 김정일의 계모 김성애는 전국에 여맹대표를 파견하여 수시로 검열 및 인사 해임을 하는 등 1970년대 초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여맹사업을 직접 지도했다.²⁴⁾

한편 김정일이 196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4기 15차 전원회의를 주도하며 후계자로서의 면모를 인정받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김정일이 본격적으로 부상하며 당과 근로단체의 조직생활을 강화하였다.

일례로 “새로운 당 생활총화제도는 당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우월한 당 생활총화제도”라고 하며 당 총화제도를 정비했고 이는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주요 기제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

김정일은 생모 김정숙의 잔심부름을 하고 살림을 봐주던 김성애가 김일성과 결혼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고, 계모 김성애와의 알력다툼이 심하였다.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위원에 오르며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는 김성애와 김평일을 비롯한 김성애의 자식들에 대해 견제를 하였다.

김정일 후계체제가 본격화된 후에는 여성동맹축소를 통해 김성애의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 후계체

23) 이가영, 위의 논문, pp.112.

24) 이하 관련내용은 이가영, “북한 여성동맹조직 역할 변천에 대한 연구,” 『아세아연구』 제60권 3호(2017), pp.116-118 참조.

제 구축을 본격화한 후에는 당과 근로단체 조직생활 강화의 일환으로 기타 단체와의 중복가입을 피하고 한사람이 하나의 근로단체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여성동맹의 가입 대상은 1965년 규약에 따르면 18세에서 55세까지의 전 여성이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도 조선로동당원과 청년동맹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맹 생활을 해야 했다. 따라서 맹원수가 매우 많고 조직권한도 매우 강하였다. 그러나 1983년 6월 여맹 제5차대회에서 개정된 규약에서는 여맹원 요건을 ‘30세 이상 타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으로 제한하였고, 기존 여맹에 중복가입 되어있는 여성이 많아 조직이 대폭 축소되었다.²⁵⁾ 1977년 26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여맹원수는 1984년 250만 명,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120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조직의 축소에 따라 여맹의 권한도 감소해 여맹의 사업도 가정 및 자녀관련 활동으로 축소되었다. 1983년 제5차 대회 이후 김정일시대에는 여맹 후속대회가 열리지 않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여맹의 과업을 토의하고 결정하였다.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등장한 1980년대부터 김성애가 아니라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따라배우기’를 본격화하며 여맹과 관련하여 김정숙의 역할을 부각하였다. 김정숙의 우상화 역시 계모 김성애의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한 목적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1981년 11월 18일 당중앙위원회비서 겸 근로단체 사업부장 허정숙과 한 담화에서 “근로단체조직들이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로서의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단체조직들이 동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을 당정책 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동원자적 역할도 원만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단체조직들이 나라와 인민을 위한 좋은 일하기 운동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년간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해놓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라며 여맹 뿐 아니라 근로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한편 1983년 12월 여맹 제5기 제2차회의 이후에는 부위원장겸 서기장 강관선이 여맹업무를 관장하고 김성애의 보고발언이 생략되기도 하였다. 1985년에는 김성애의 친인척과 자녀들을 걸가지 무리로 비난하였고 공식 활동에 나서지 않던 김성애는 형식적이고 상징적이었던 여맹위원장직을 1998년 3월 천연옥에게 내주게 된다. 천연옥은 ‘여맹의 때가 조금도 묻지 않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 정권 이후 김성애의 등락과 함께 위축되었던 여맹은 1998년 중앙위원회위원장을 천연옥으로 전격 교체하고 30여년 만에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

25) 이은숙·이인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조선민주녀성동맹』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p.157).

최한다. 1998년 김정일은 “여맹은 사회정치조직 가운데 중요한 조직 중의 하나이며 여성들도 사회의 중요한 구성부문을 이룬다. 그런데 사회에서여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여성들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그릇된 사고방식이며, 여맹을 강화하고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다.²⁶⁾

2000년 박순희 위원장 체제 이후 여맹은 김정숙따라배우기 운동에 앞장서는등 김정일 위원장에게 충성을 다하는 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고 여성들 속에서 국가경제와 교육, 다산운동과 자녀를 많이 키워 군대 보내기 등 노동당의 정책 집행에 앞장섰다. 김정일은 후계자 선출 이후 40여 년간 여맹의 주관행사인 3.8 국제부녀절행사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2008년 처음으로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고난의 행군 이후 급감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여야 하며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국가경제와 선군정치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들을 사회주의 사상과 도덕을 갖도록 키우게 하려면 여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성애가 물러난 여맹은 제한적이거나 활동범위를 넓히게 된다. 북한 정권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했지만 경제 위기로 기업소나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곳이 늘어났고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여맹은 여성을 직접 노동력에 참여시키기보다는 산업현장이나 군부대 노력, 물자지원, 식생활보장을 위한 집집승기르기에 여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동맹의 구조와 행태는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으로도 확인된다.²⁷⁾

3. 김정은 시대 여맹의 변화와 세습정치

2008년 8월 김정일은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고 이듬해인 2009년 1월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하는 교시를 내린다. 2010년 9월에는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권력은 아들인 김정은에게로 이어져 3대 세습이 이루어진다.²⁸⁾

김정은 집권 초기 여맹의 공식기관지 『조선녀성』에서는 여성영웅의 유형을 여성노력가유형, 여성혁명가유형, 전문직여성유형, 현모양처유형, 원군(援軍) 원호(援護)여성 유형의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²⁹⁾

26) “녀성동맹 사업을 활력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끄시여,” 『조선녀성』 2000년2호; 이가영, 앞의 논문, 재인용

27)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한울출판사, 2003), p.274-275.

28) 이하 내용은 이가영, 앞의 논문, pp.123-125 참조.

29) Sung-wook Nam, Jin Bae, Su-lan Chae, Ga-young Lee, “Study on Heroine Discourse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Focusing on Articles of Women of Joseon.” *Journal*

여기서는 항일투쟁가, 강반석, 김정숙을 따라배우자고 주장하고, 현모양처를 강조하여 자식을 많이 낳아 군인으로 키우고 자식양육과 교양을 잘하며 남편을 내조하고 어진 며느리가 될 것을 강요한다. 인민군대에 물자를 지원하고 전쟁노병과 영예군인에게 봉사하는 원군원호를 강조하여 선군시대의 사상을 이어가며, 각계 각층에서 노력하여 훌륭한 성과를 낸 여성을 영웅으로치켜세워 따라 배우도록 한다.

김정은 시대에 여성동맹에서 강조하는 내용의 큰 맥락은 선대와 변함없이 지속되고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동행하는 리설주나 김정은 생모, 여동생 김여정과 관련된 내용도 『조선녀성』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여성동맹의 기본적인 맥락이 유지되는 것에는 김정은의 생모를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약점이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정권을 잡은 후 계모인 김성애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친모 김정숙을 영웅으로 내세우며 ‘김정숙 따라배우기’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김정은의 경우 생모 고영희가 재일교포라는 점이 정권유지에 치명적인 취약점이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이 어머니인 강반석을 강조하고 김정일 또한 어머니 김정숙을 영웅으로 묘사하였던 것에 비해 김정은이 생모의 이름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은 백두혈통을 강조하여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이어나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에도 계속해서 옛 인물인 ‘강반석 따라배우기’, ‘김정숙 따라배우기’가 신화처럼 등장한다.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강반석, 김정숙, 고영희의 언급량을 비교해 보아도 강반석과 김정숙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고영희는 노동신문 기자 혹은 동명이인을 다룬 기사들로 판단되어 언급량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표1> 2000년대 이후 김정은 집권 전후 노동신문 여성우상화관련 기사언급량

기간	대상	강반석	김정숙동지	고영희	비고
2000-2011년		4건	3780건	199건	고영희는 노동신문 기자 검색량이므로 무의미
2011-2021년		3건	1135건	5건	고영희 동명이인 기사로 무의미

세습정치의 정점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남성 중심의 최고지도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여성의 역할은 선대 최고지도자의 어머니들을 호출하여 우상화하여 강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2000년대 이후 김정일대에서도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가

of Peace and Unification, 7, No. 1(Spring 2017). p. 56.

사랑은 206건(2000-2011년), 175건(2011-2021년)³⁰⁾을 차지하여 선대 여성영웅 우상화 이외에 현실정치에서 활동하는 최고지도자의 여동생 지위도 한몫을 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북한 현실정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김여정의 위상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김여정은 김정은 집권 이후 현재 노동신문에 111건의 기사가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목 헤드라인에 언급된 기사도 2020년 1건, 2021년 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도수가 높지는 않지만 언급량이 증가하고 있고 기사제목상으로 드러나는 역할이 보이는 점은 현실권력에서 김여정이 가지는 위상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권력 세습의 이론적 논의를 다시 정리하자면 세습 후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권력 이양 과정에서 권력투쟁을 방지하여 현존 상층 엘리트들의 기득권과 안전을 수호하며 현존 체제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현존통치자와 주변 엘리트들의 공동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세습 후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자리를 놓고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최고지도자의 혈연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는데 김정일과 김정은의 경우 김경희와 김여정이 일정 부분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과 김정은 모두 남성 형제들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제거되거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 후계자가 지명되기 전까지 여동생의 정치적 위상을 일정 부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등장한 2010년 이전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가 권력의 최고위 정점에 있지는 않았지만 기사언급량이 상당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김경희의 언급량은 줄어드는 반면 김여정의 언급량은 증가하고 최근 기사에서는 제목에도 이름이 드러나는 등 전면에 보이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특히 김정은 대에 고영희 따라배우기가 등장하지 않는 상황과 아직 아들 후계자가 공식 지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여정의 정치적 역할은 상당 기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김경희와 달리 대남, 대미 개인담화 발표 등 대외분야에서도 두드러지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김여정의 정치적 역할은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할 연구과제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김여정이 후계자로 지명되었다거나 김정은을 대체할만한 위치와 세력을 점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 명시적 정황과 근거는 보이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30) '김경희' 동명이인 기사량은 수천 건에 달해서 무의미하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경희 부장을 지칭하는 '김경희동지'의 기사언급량임.

IV. 맺음말

김정은 집권이 장기화될 경우 여성동맹의 역할 및 여성정책에서도 선대와는 다른 김정은의 특징이 더욱 확연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권력세습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들 후계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여정이 상당 부분 정치적 역할을 하는 여성 직계혈통으로서의 사례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표면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북한에서 여성의 정치적 위상은 꾸준히 상승되고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6월 유엔에 제출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에 따르면 북한은 오래전에 성평등을 달성했으며, 글로벌 SDGs의 목표 대부분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은 1946년 7월 30일에 발표된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하면 수백년간 봉건주의에 제약에 고통받고 제국주의에서 노예의 운명을 겪어온 여성은 이제 남성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국가적 활동과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사회주의 헌법 77조에 따라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여성과 아이는 유급 산전·산후휴가를 통해 보호받으며,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는 노동시간 단축” 및 기타 사회적 혜택을 누린다고 한다. 북한은 “여성권리보장법”, “노동보호법” 등 여러 법안을 채택하며 사회경제적 전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치 분야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투표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기관의 선출직에 출마할 권리도 있다고 설명한다. 동 보고서에서 북한은 2015년 13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선된 여성비율은 20.2%였으며, 2019년 14기에서는 17.6%, 그리고 지방인민회의에서는 25%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수치상으로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위상 수준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정치참여나 여성의 권리보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으며 특히 세습정치의 속성상 최고지도자의 선대 어머니를 우상화하며 따라배우기를 하는 모습이나 최고지도자의 보조재로서 직계혈통 여성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계가 있다. 권력세습이론의 관점에서 이마저도 최고지도자의 아들 후계자가 지명되기 전까지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의미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위상이 북한에서 보장받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북한 정치 상위 엘리트 리더십에서 여성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한반도의 정치 통합에 있어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도 상호 접점과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더 많은 준비와 연구가 필수적이다.

[토론문]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 변화” (정대진)

강 혜 석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세습정권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북한체제에 나타난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 변화’에 대해 고찰했다. 북한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세습을 3대에 걸쳐 실행한 전대미문의 독특한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세습의 동학과 과정이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 이 논의가 규명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

저자는 도입부에서 이 같은 연구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현존 통치자의 자연수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권력 이양에 따른 불확실성을 통제하여 현존 체제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현존통치자와 주변 엘리트들의 공동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권력세습 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되어 왔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세습정권이라는 특수성을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과 결부시켜 분석하려는 저자의 시도는 흥미로울 뿐 아니라 유의미하다. 관건은 세습정권의 메커니즘과 여성의 정치적 위상 간의 논리적 연결고리이다. 관련하여 아래의 몇 가지 지점이 보완된다면 보다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세습정권의 개념과 관련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세습정권(정치)은 북한체제의 고유한 특성이자 본 연구의 핵심적인 변수라는 점에서 정교한 개념화 작업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습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단계’를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주기’를 갖기도 한다. 예를 들면 후계자로 선정되는 과정, 후계자가 스스로 자격을 입증하는 과정, 권력 이양 이후 독자적 권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등 세습 정치에서도 과정에 따른 차별점이 존재한다. 더욱이 김정일의 세습과정은 유례없이 장기적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1967년, 1974년, 1980년, 1994년 등 후계의 단계를 가늠한 주요한 기점들을 전후하여 후계자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이나 세습이 북한 정치 과정에 미쳤던 영향은 동일하지 않았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세습정권으로서의 성격이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에 미친 영향 역시 각 단계와 시기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독립변수로서의 세습정치 개념이 보다 분명하게 설정되고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논거가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면 연구의 전반적인 분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습정치(정권)라는 개념과 북한 정치의 다른 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동일한 맥락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 주체사상, 수령론, 후계자론, 계속혁명론은 북한 세습정권이 근간한 체제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설명이다. 일련의 개념들이 세습정권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루 수용되고 있다는 서술에도 불구하고 이는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류의 일반론적 접근이든 네 가지 북한 체제의 특성이 기반한 특수성의 접근이든 그 자체가 온전히 세습정권 자체를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도 아니며, 개념 간의 위상 역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세습정치에 일련의 개념들이 도구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주체사상이 세습정권의 수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세습정치의 개념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북한의 다른 정치사상 개념들과의 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기술된다면 본 연구의 전체적인 논지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북한의 여성의 정치적 위상과 관련한 ‘연구 질문’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연구 목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고지도자의 어머니라는 과거의 인물을 호출하여 현재의 여성상을 규정해나갔던 선대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는 김여정이나 현송월 등 직계 여성혈통이나 최측근이 직접 활동하며 새로운 유형의 여성상을 만들어나가며 정치적 위상을 점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왕조국가에 가까운 독특한 정치형태에서 여성의 정치적 위상이 어떻게 변천했는가? △특히 최고지도자의 어머니 따라 배우기 변천과정과 북한의 여성동맹조직의 리더십 변천과정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현재 고영희 이상화 작업의 부재가 의미하는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김여정과 같은 직계혈통 여성 리더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과도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보다 간략히 정리하면, △ ‘과거의 인물이 아닌 현재의 인물을 통해 새로운 여성상을 구현해나가는 정치현상 △왕조국가(?) 내에서 여성의 정치적 위상 변화 △강반석·김정숙 따라 배우기 운동과 여맹 리더십과의 상관관계 △고영희 이상화의 부재와 김여정 등 직계혈통의 정치적 위상과의 상관관계 등 네 가지이다.

열거된 논의들은 각각 단일한 연구 주제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단일 연구에서 모두 포괄하는 작업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각 질문에 대한 연구 결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사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각각의 논점은 별도의 논거를 통해 규명되어야 하며 그 종합 역시 별도의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분석이 보다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상기한 질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종합’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가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의 변화를 평가하는 ‘기준’ 혹은 ‘척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새로운 여성상과 유형 △여맹 리더십의 유형과 변화 △여성 개인의 정치적 성취 유형과 변화 △따라 배우기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유형과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구체화, 일반화의 조건에서 각각의 변화들이 독해된다면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셋째, 조직과 인물, 권력 정치 등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적 위상 변화에 대한 중요한 논거로 여맹과 그 리더십을 꼽았다. 박정애, 김성애 등 여맹 위원장의 정치적 부상과 쇠락을 통해 여맹의 위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 변화를 가늠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리더십과 조직 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 여성 전체의 위상을 연동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김성애와 김정일의 정치적 쟁투의 과정이 북한 권력정치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던 점을 인정하더라도, 김성애와 여맹 자체가 동일시될 수는 없으며 나아가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을 평가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가 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여성 일반의 정치적 권익 신장과 행정 부처의 유무 및 정책적 성취도는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거나 여성부가 설립되거나 위상이 올라갔다 해서 해당 국가의 여성 권익이 신장되었다고 단정짓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인물에 대한 정치적 상징성을 강조하든, 조직으로서의 여맹의 정치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매커니즘을 강조하든, 인물과 조직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정을 하든, 각 현상들에 대한 보다 엄밀한 논증이 추가된다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 변화 분석에 필요한 구조적 변수와 관련한 부분이다.

북한 여성들의 정치적 위상 변화와 관련해서 권력정치 변수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측면이 바로 북한의 경제 및 산업환경의 변화 등 구조적인 변수들에 대한 고려이다. 본 연구의 1970-80년대의 서술은 김성애와 김정일의 권력 경쟁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주지하듯 1970년대 후반 사회주의 진영의 내부개혁 흐름에 따른 북한 경제의 부담과 불안정성은 북한 산업환경의 정상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미쳤다. 공장가동율의 저하에 따른 북한 여성들의 산업생산직으로부터의 배제는 공장 및 직장에서 가정으로의 사회적 이동을 야기했다. 공식 노동에서 비공식 노동으로의 이동은 식량과 상품 배급을 불리하게 했음은 물론이다. 1990년대로 이어진 북한 경제의 지속된 침체와 자연재해는 집단아사자의 발생 등으로 상징되는 고난의 행군으로 귀결되었다. 여성들은 선군정치에서 후비대의 역할로 헌신과 봉사를 강요받았으며 이중노동의 부담이 전가되었다. 본 연구가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여성의 위상변화를 세습정권의 정치동학과 권력경쟁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서술에 더해 당시 북한의 경제 및 산업환경의 구조적 이슈에 따른 여성들의 정치적 위상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면 본 연구가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세습정권의 가부장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래 지속적으로 부상해온 북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1990년대를 관통한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와 선군정치, 2010년대 핵무력 완성 선언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 등 북한의 가부장적인 정치 관행과 그 담론의 양상을 상기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즉 최근 북한 정치의 흐름에서 여성의 정치적 개입이나 적극적인 참여가 북한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 증대되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군사·안보 논리가 국가의 최우선적 이익으로 절대시 되는 동안 여성의 실질적인 정치적 영역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의 지적과 같이 적어도 형식적으로 북한 여성들의 정치적 위상이 신장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제8차 당대회 총대표자 가운데 여성대표자가 501명으로 10%에 달하는 점이나 각종 법령의 제정을 통해 일련의 복지를 제도화하는 과정, 어머니날의 제정과 전국어머니대회의 개최, 조선노동당에 대한 어머니당 상징 강화 현상 등은 여성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곧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의 강화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저자의 지적과 같이 이러한 정치적 현상들은 사회주의대가정론의 원칙 하에 강조된 북한의 남성중심적 정치 동학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징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여성 스스로가 정치 공간에서 독립적인 주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

다.

즉 북한 여성 일반의 정치적 위상의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지기 위해 제도적 변화가 지닌 가부장적 속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결국 세습정권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모성의 매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가부장적 속성에 대한 추가적 분석을 통해 세습정권과 여성의 정치적 위상의 변화에 대한 논리적 연결고리도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문]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 변화” (정대진)

가부장 세습체제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부재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여성에 대한 인식·사고 체계는 시대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유사해 시대의 변화와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아해질 때가 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인식·사고 체계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국가 간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체제와 성차별주의(sexism) 뿌리가 그만큼 깊고 넓다는 것을 보여주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여성에게 이중·삼중의 의무만 부여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에 기초해 여성을 “수레의 한쪽바퀴”로 비유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강조했다. 발표문이 밝히고 있듯이 여성의 사회참여(건국사업 참여)는 “여성 노동력을 사회로 동원하기 위한”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기 어렵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여성노동으로 간주되는 영역(교육과 보건 등) 중심으로 확장했다는 사실은 성별화된 노동분업 체제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보여주며, “여성들이 사업할 수 있는 남성노동력을 (여성으로) 교체하고 여성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부문에 추가되는 노동력”을 “반드시 여성으로 보충”했는데 이는 여성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이기보다는 남성 노동력을 저임금의 여성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노동의 여성화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장하기 위해 북한은 탁아소, 유치원, 공동세탁소 등의 편의 시설을 확장했지만 동시에 “현모양처”를 강조하고, “자식을 많이 낳아 군인으로 키우고 자식양육과 교양을 잘하며, 남편을 내조하고 어진 며느리가 될 것을 강요”하는 등 가정 내에서는 봉건적/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여성에게만 이중·삼중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봉건질서를 타파하겠다고 했지만 ‘혈통’ 중심의 권력세습 체계 자체가 봉건질서라는 점에서 북한 정치체제와 사회질서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봉건질

서 속 여성의 지위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고권력자의 어머니인 강반석(김일성의 어머니)과 김정숙(김정일의 어머니)만이 지속적으로 호명되고 추앙되는 것은 북한사회에서 여성이 존중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어머니’ 일 때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영희가 강반석이나 김정숙과 같은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재일교포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세습 통치가 ‘순수’ 혈통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의 세습통치 기반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전대 최고권력자들이 했던 자신의 어머니 배우기 작업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것, 정권유지에 치명적인 취약점이 된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혈통의 순수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면, 세습통치의 정당성 또한 상실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제거와 부재

조선민주여성동맹은 2016년 11월에 열린 여맹 6차 대회에서 조선민주여성동맹을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조선민주여성동맹에서 ‘민주’라는 말은 정치적 표현으로,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집행만 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 경제활동에서 여성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16.11.19.)고 해석했는데 사회주의가 어떤 주체성을 의미한다면, 그 주체성은 어머니로서의 주체성, 즉 자녀를 낳고 길러 사회주의 일꾼으로 만드는 주체성을 발휘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인다.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김성애가 이끌던 여맹의 위상과 영향력을 축소시켰고, 여맹 구성원이 전업주부이며, 여맹 기관지인 <조선여성>에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하기보다는 최고권력자의 어머니 배우기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맹은 남성 중심의 북한 세습체제를 뒷받침하는 역할 이상을 한다고 하기 어려우며, 여맹의 변화나 활동이 북한 여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는 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북한 정치구조 속에서 현재 여맹의 위치와 역할은 북한 여성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의 축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 여동생인 김여정의 활약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지만 최고권력자의 여동생(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정치적인 지위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최고지도자와 혈연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이것 외에는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취약

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권력세습이 부계혈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여성의 권력은 최고권력자를 위협하지 않고, 보좌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고권력자와 같은 혈통이라도 여성의 지위는 언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최고인민회의의 여성비율이 20.2%이고, 지방인민회의의 여성비율이 25%라고 하지만 자율성과 독립성이 없고, 권력의 가부장성이 강한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상징적 대표성(symbolic representation)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세습체제가 현 체제를 보장하려는 현존 통치자와 주변 엘리트들의 공동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권력을 획득한 여성들 또한 현 체제를 보장·수호하려는 남성 엘리트와 똑같은 공모자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여성들이 다뤄지는 방식은 성차별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으며, 성차별주의 이데올로기가 북한의 세습권력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축에서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여성은 적대적·위협적 존재로 보고 그러한 여성을 처벌(배제 또는 숙청)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른 한축에서는 남성을 내조하는 여성에게는 찬사를 보냄으로써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를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든 온정적 성차별주의든 모두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성차별주의 인식을 남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또한 내면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여성들이 어떤 성차별주의를 얼마나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차별주의를 남북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노동해방이 여성해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듯이 남북 교류와 통일이 성평등 또한 저절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은 정치·경제·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도 이질적이지만 성차별주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기 어렵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성평등의 진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여성들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성차별주의를 해소하고 성평등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와 사회를 젠더관점에서 더 면밀하게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다. 소수 엘리트 여성들의 위상과 위치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지, 그러한 권력 행사가 북한체제 내의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없

는지, 북한체제의 가부장성과 남성 중심성이 북한사회의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북한여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순응하는지 또는 저항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다면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와 남한체제의 성별화된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할 때 젠더관점에 기초한 실천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Session II

[발표문]

북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변화

Professor Bronwen Dalton, D. Phil (Oxon)
UTS BUSINESS SCHOOL 경영학과 학장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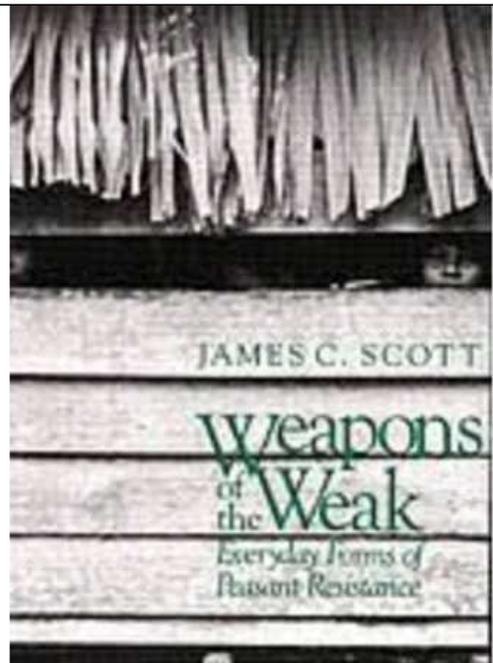
- 연구 질문
- 독재의 회복력을 유지하거나 약화하는 일상의 과정
- 방법
- 여성이 이끄는 풀뿌리 자본주의: 가정 안팎의 '삼중 부담'과 폭력
- 불안정한 가부장제: 성 역할, 인간 관계 및 가족
- 장마당 세대: 돈주의 부상, 과잉여성성과 과시소비
- 급변하는 정보 환경
- 2021년의 여성: 제재, 홍수, 코로나19, 식량 불안 또 다른 고난의 행군?
- 현재 단속
- 여성과 정권의 미래 정당성?

방법

- 한국, 중국, 호주에 재정착한 여성 난민과의 심층 인터뷰 41건. (2014년 9월, 2015년 5월, 2016년 1월 및 12월 현장 연구)
- 눈덩이 표집, NGO 및 개신교 교회를 포함하여 연구 현장 다양화
- 3번의 북한 견학(Dalton이 평양, 혜산, 개성의 학교, 극장, 미용실, 식당, 백화점 및 기타 공공 장소를 방문).
- 1차 및 2차 자료 분석. 예: 한국어 연구, 공식 문서 및 미디어 분석.

독재의 회복력을 유지하거나 약화하는 일상생활

- 권력 행사는 일방적이지도 않고 사회와 정치의 구분 또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을 기초로 하고 있지도 않음. 특히 사적 영역도 공개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정치인 북한에서는 더욱 그러함.
-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보지 않으면 대중 전술, 일상의 저항, 현장에서 권위주의의 회복력과 같은 중요한 단서를 놓침.



연구질문

1. 시장의 성격과 그 안에서 여성의 역할은?
2. 여성들의 활동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은?
3. 일, 가족, 결혼, 재생산 건강 및 여성성 구현과 섹슈얼리티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맥락에서 여성의 역할 및 지위는?
4.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가장 최근의 자연 재해, 경제 제재,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폐쇄는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5. 자본주의적 관계의 확산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는 사회적 관계, 또한 정권의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요약: 사회경제적 변화

- 시장화 확산
- 외국 대중 문화에 대한 노출 증가
-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이어졌으나 정치적 변화는 아님
- 상대적 박탈감-3중 부담을 지는 여성과 돈 많은 엘리트 출신 여성
- 이러한 변화는
 - 평양을 훨씬 뛰어넘어 대부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의 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국적으로 북한 여성의 역할과 생활양식, 심지어는 북한의 여성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키고 있음
- 새롭게 정립된 이러한 경제적 행위자성은 전통적 가부장제 체제에서 사회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들은 가족의 생존 뿐 아니라 북한 경제의 생존까지 보장하느라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음

여성이 이끄는 풀 뿌리 자본주의

- 시장 상인의 75~80%가 여성 (Yi 2006 p. 37; Lankov and Kim 2008)
- 2016년 180만명이 약 400개의 시장을 매일 방문 (Kim 2016,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18).
- 공식 시장마다 최대 2만 개의 가판대가 있음
- 20세가 넘는 여성만 상품 판매가 허용됨
- 여성이 가구 소득의 70% 이상을 벌어들임
- 여성은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여 가족의 생계, 안전, 발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로 부상 (Jung, Dalton & Willis 2018).



• 4종의 부담



유급 노동, 무급 가사노동, 돌봄 노동의 '3중 부담'은 여성에게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 결혼하면 여자는 노예예요. 여자는 남편 말 잘 듣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여자들은 보리를먹어도 남편은 흰쌀밥을 줍니다. 여자들은 남편의 헌 옷을 입고 남편에게는 새 옷을 입힙니다. (Ri, 39)

- 여성은 상당한 시간 빈곤을 경험
- 생계 부양자로서 책임
- 육아/가사 운영의 요구
- "충성" 노동 (예: 생활총화), 종종 스스로의 참여 통제 및 감시 (예: 국가 김사시스템의 핵심 지점인 인민반에서의 역할)

가정 안팎에서의 폭력

- 가정 폭력
- 약탈 국가
 - 뇌물-공무원은 시장 상인들로부터 '자릿세'를 받으며 시장의 이윤 창출 시스템에 기생적으로 작동 (Haggard & Noland, 2013, p.51)
 - 공무원, 교도관, 조사관, 경찰, 검사, 군인, 남편에 의한 성폭력
- 중국으로의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 그러나 여성은 또한 공식적인 부패와 이주를 전략적으로 이용
 - '귀신도, 뇌물을 주면, 말을 듣는다'
 - "공산주의에서는 협박을 해야 개도 말을 듣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뇌물로 복종을 얻는다."
 - "거기서 더 잘 살고 싶으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여성이 되거나, 시장에서 이 여자들의 뇌물이나 세금으로 먹고사는 남자와 결혼하거나, 아니면 정권의 무역회사에서 일 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다."

불안정한 가부장제: 가족과 사회관계



"비사회주의적" 삶의 방식대로 살기 ...

- 가족 내 성역할 완화 및 가족관계 변화
- 시장 참여는 여성에게 일정 수준의 공적 가시성과 제약 받지 않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
- 북한 여성들은 이로 인해 더 큰 지위와 경제적 독립을 얻었고 많은 여성들이 가정의 의사 결정에서 더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게 됨



성 역할

- 생계 부양자로서의 지위가 생기면서 가사 결정권의 권한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여성을 아내와 어머니로서만 바라보던 편협하게 가정에 매인 이념형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다음은 이를 반영함
 - 속어. 예: “하루 종일 꺼진 불”이나 “경비견” 같은 남자
 - 딸에 대한 가치 부여. 한 난민에 따르면,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아이를 하나만 낳으려는 집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아들 하나만 낳으면 말년에 고아 신세가 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 아들은 집을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더 부담이 되지요. 기근이 닥치면, 아들은 딸보다 더 많이 먹고요.”
 - 인간관계-연애결혼, 이혼 및 연애 증가



장마당 세대

- 사회가 점차 물질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이 되면서 사회적 지위가 시장에서의 성공과 연결
-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역할은 노동자의 재생산자에서 계급과 사회적 지위의 재생산자로 이동
- 20~30대는 시장경제와 외국 미디어를 경험, 남한의 변영을 알고 있음. 여성성의 사회적 구성에 있어, 국가에서 규정하고 통제하던 이전의 이상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영향
- 시장화는 사회 전체의 관심, 기대,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음.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 활동의 확대는 소비 양식 변화로 드러남.
 - 패션
 - 성형수술
 - “빛나는 5점”
 - 대중문화
 - 학원과 과외



급변하는 정보환경

- 이전에는 국가가 정보를 기획, 생산, 독점. 그러나 통제가 약화. 휴대폰과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생존에 필수.
- 한류의 영향: 북한 젊은 세대의 70~80%가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본 것으로 추정. "미스터트롯"이북한 여성들 사이에 큰 인기.
- 해외 미디어 소비는 수동적 활동이 아닌 '또다른 생산'. 수입된 미디어/대중문화가 미디어 소비에 스며들면서 다른 물질적 미래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자극할 수 있음.
- 양날의 검-정부가 허용하고 통제하는 전자제품을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수록, 시민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부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됨



경제위기와 정부 탄압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Photo by Dr Kyungja Jung (2013)



여성과 리더십

-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핏줄인가 성별인가?

2021: 또 다른 고난의 행군?

공식적으로 보고된 코로나19(유령병) 사례는 없으나, 인접한 라오닝 및 길림에서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

백신을 기다리는 중-AZ 2백만 회분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연

경제 위기

- 2017년 수출이 32.6%, 2018년에는 83.1% 감소. 2017년 GDP 3.5% 하락 및 2018년에는 4.1% 하락. 중국과의 무역은 2020년 81% 축소.
- 130만 톤 이상의 곡물 부족에 직면, 인구의 40% 또는 천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직면
- 무역 통제로 인해 식품 가격 급등

2021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리며, 또다른 "고난의 행군"에 대비할 것을 촉구.



단속은 여성의 성별화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킴

시장 거래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

- 국경 통제 강화 조치 - 공급망 차질
- 지도부는 여성들에게 김일성의 '전리마 정신'을 따르도록 촉구
- 도시에서 주로 성행하던, 어린이를 돌볼 돌보미를 고용하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명령.

김정은이 양육 문제를 새롭게 강조. 돌보미 고용을 “자신의 안락함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개인주의”로 명명. 사회가 “돌보미 근절을 위한 날선 투쟁”을 벌여야 하며 위반하는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처벌.

뒤죽박죽 아니면 붕괴?

모든 혁명적 변화는 혁명이 일어나기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테오도르 로작 Theodore Roszak

모든 것은 영원했다, 더 이상 영원하지 않을 때까지는.

알렉세이 유르차크 Alexei Yurchak



고맙습니다

[토론문]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 변화 (Bronwen Dalton)

최은주(세종연구소)

주제 및 방법론

북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연구

- 사회 구조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수행

미시적 수준에서의 북한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 거시적 구조 내에서의 수동적 행위자를 넘어 능동적 행위자로서 여성 상정
- 사회구성원 일반에서 ‘여성’의 특성을 고려
- 일상생활 분석을 통한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변화 양상 연구

탈북여성의 인터뷰 및 현지 조사, 1,2차 문헌 연구

- 참여관찰이 어려운 북한 연구를 고려, 다양한 대안적 방식들을 활용하여 북한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단면 파악
- 북한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과 현실의 괴리 파악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

양성평등 원칙을 법제화했으나 현실에서는 여성의 권리 보장 취약

- 정권 수립 이후 북한은 양성평등, 여성해방, 가정혁명화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참여 독려
- 현실에서는 가사, 생계, 부역이라는 가정 및 사회 구조 내에서 3중의 역할 수행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사회적 인식 및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기인

- 법제화에 비해 더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전통적 여성의 역할 강조
- 90년대 경제난 이후 가정 경제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 강화 및 취약해진 영유아 돌봄시스템에 대한 보완으로 양육 의무 수행 강화

- 특히, 90년대 경제난 이후 확산된 시장 내 경제활동은 여성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공식 경제에서는 남성, 비공식 경제에서는 여성 중심으로 이분화

최근 북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의 특징

공식 부문에서 경제 활동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 김정은 집권 이후 전문직 여성의 사회 진출과 간부 발탁 독려 등 공식 부문에서의 역할 강조 추세
- 경공업, 상업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과 공장의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공식 부문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가능성 제고
- 시장 활동의 확산으로 기존의 위계적 관계 약화 등 기존의 가부장성 약화

사회경제 내 불평등 구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 여성들 속에서도 지역, 계층, 교육수준, 출신에 따른 사회경제적 역할 상이

변화의 능동성과 향후 전망

- 행위자와 구조(제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능동적 행위자로서 여성의 역할 강화가 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주목 필요

[토론문]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 변화 (Bronwen Dalton)

정은이(통일연구원)

총평

본 연구는 무엇보다 최근 북한 경제 및 사회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여성의 능동적 요소를 발굴하고, 이러한 과위가 향후 정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다채로운 ‘일상’ 과의 접목을 통해 북한 경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위상을 새롭게 재고하려는 시도는 북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동안 간과하기 쉬운 부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과 함께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참신하고 의의가 크다.

무엇보다 북한 자료가 한정된 상황에서 3차례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고, 더욱이 평양 뿐만 아니라 혜산, 개성 등 지방도시를 포함하여 학교, 극장, 미용실, 식당, 백화점 및 공공장소 등 다양한 지역을 방문했던 현지 경험과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은 논문의 정확도를 높이고,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최고의 노력이라고 판단된다.

쟁점

1990년대 이후 진행된 북한 시장화에서 여성들이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에 대한 시계열적인 고찰과 함께 장마당에 한정된 경제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최근 여성의 변화와 발전이 ①북한 체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는지? ②혹은 체제 불안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는지? ③아니면 필자의 주장과 같이 향후 가장 폐쇄적이며 설득적이며, 억압적인 정권(regime)을 전복시키는 쪽에 더 많은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가? 에 대한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토론자는 ‘돈주’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실 북한에서 ‘돈주’의 역사를 거슬러가면, 최초 돈주는 1950년대 말 북송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조선인 북송교포이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적대계층에 속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상위에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은 일본에 사는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물자나 외화송금을 받았는데, 이러한 물품의 가치가

북한에서는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 세이코시계 하나가 노동자 80년분의 임금에 해당되었을 정도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최고 완성기인 60년대 중반 오히려 제일조선인 북송교포는 북한에서 암시장을 싹트게 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거래 상품들이 여성들이 선호하는 옷이나 가전제품 등 사치품 중심이었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제일조선인 여성들은 암시장의 주체가 될 여건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시장의 주체로 등장한 이른바 ‘왕서방’ 이라고 불리는 북한 화교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북한에서 돈주는 80%가 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후에 90년대 무역업자, 2000년대 몰주, 2010년 이후 관료 등이 돈주로 합류했으나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돈은 여성이 관리하기 때문에 돈주는 여성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돈주’란, 10만 달러 이상의 운영자금을 가진 경제주체로써, 전국에 약 5천여명이 소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사금융업에 종사하지만, 단순히 고리대업의 수준을 넘어 각 지역 경제뿐 아니라 제3국과도 송금 네트워크가 연계되어, 국내 외화 현금 유입과 유통을 촉진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물류운송업 외에도 각 지역 공장기업소의 생산요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사금융의 양성화, 즉, 돈주들의 자금을 당국이 상업은행으로 흡수하는 수준까지 돈주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돈주, 즉 여성은 첫째 비공식부분의 확대 및 제도화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장마당을 비롯해 유통, 부동산, 생산요소에 대한 진출 등이 90년대에는 불법이었으나 지금은 일정 부분 공식부분으로 흡수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암시장가격의 합법화에 기여했다. 지금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장가격으로 거래하고 있다. 셋째, 경제투자의 구조가 상업에서 산업자본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2000년대 중반만 해도 많은 돈주의 자본이 무역에 투자되었다면 지금은 내수를 겨냥한 국내 생산부분에 적지 않게 투자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여성이 돈주이다보니 그 지역의 보건, 위생, 교육 등의 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즉 최근 돈주는 지역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상호보완작용을 하면서 성장/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돈주와 여성의 역사적 변화와 발전 과정속에서 볼 때 북한

여성은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소극적 존재가 아니라 북한 체제를 좀더 역동성있게 진화, 발전, 변화시키는 선도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돈주는 고부가가치를 쫓는 실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질문

현장조사(2014.9, 2015.5, 2016.1월과 12월) 기간에 실시한 탈북 여성 41명의 탈북 연도는? 즉 이들이 글 속에서 이야기하는 시점은?

3차례 북한 방문 (평양, 혜산, 개성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가 본 연구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가?

북한 여성, 장마당세대, 상위 1% 돈주와의 관계는?

가전제품 6종에 휴대전화는 포함이 되고 있지 않은가?(최근 동향은?)

장마당세대, 패션, 소비문화 및 과시 소비, 학원 사교육, 급변하는 정보환경, 한류의 영향, 3중고(자연재해, 코로나19, 제재 등)이 여성의 삶에서만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인가, 즉, 이러한 요소들이 남성의 변화된 삶에도 나타나는 변화가 아닌가?

Session III

[발표문]

‘공화국의 립스틱’ 으로 본 북한의 여성 문화 : 김정은 시대의 뷰티와 화장품

전영선(건국대 연구교수)

1. 들어가는 말

뷰티와 화장품은 김정은 시대 북한 여성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이다. 김정은이 신의주 화장품공장이나 평양화장품공장을 방문하였다는 기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체제 이후 『로동신문』에서 화장품 관련 기사가 크게 늘었다.

북한의 화장품을 비롯한 뷰티문화는 최고지도자의 관심 사항은 아니었다. 화장품 종류도 많지 않고, 화장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도 않았다. 여성들에게 화장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에티켓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뷰티와 화장품은 김정은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다. 김정은이 직접 화장품공장을 방문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 『로동신문』도 김정은 위원장이 화장품공장을 찾았다는 기사를 자주 노출하였다. 화장품 회사의 경쟁도 유도하였다. 신의주화장품 공장과 비교할 때 많이 부족했던 평양화장품 공장의 설비를 완전히 새롭게 교체하였다. 『로동신문』은 ‘여성들에게 질 좋은 화장품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의주화장품 공장을 만들어 주었고, 이어서 평양화장품공장을 개건하도록 하였다’³¹⁾고 소개하였다. 김정은의 화장품공장을 현지 지도는 이후로도 몇 번이나 지면에 더 소개되었다.

화장품, 나아가 뷰티는 왜 이처럼 김정은 체제에서 관심을 두는 것일까? 정치적으로는 인민들이 뷰티에 관심을 두는 것을 사회주의 문명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 선전한다. 인민을 위한 지도자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과 자강력을 앞세운 상품으로 주목하고 있다.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제품의 디자인도 개선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도 높이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뷰티와 화

31) 「사회주의 경쟁열풍을 일으키시던 나날에」, 『로동신문』, 2014년 9월 15일 :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 특히 녀성들에게 질 좋은 화장품이 더 많이 차례지도록 하기 위하여 신의주화장품 공장을 훌륭하게 세워주신 데 이어 평양화장품 공장도 개건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부여주시었다.”

장품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주의 미감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를 향한 인민들의 욕망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런 저런 변화의 물결이 화장품으로 시작하여 뷰티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화장품과 뷰티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분야이다.

II. 화장에 대한 인식과 화장문화

1. 사회의 꽃과 화장

북한에서 화장은 여성으로 갖추어야 할 예의나 도덕 사항이다. 예의나 도덕이기 때문에 사회적 윤리나 기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기준은 사회주의 미감(美感)이다. 사회주의 미감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지키면서 미감(美感)에 맞추라는 것이다. 여성이 화장하는 것은 개인이 미를 가꾸는 것이 아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기본 행위여야 한다. 북한에서 원하는 화장은 ‘사회주의 미감’에 맞는 화장법이다.

화장에서도 개인의 특성보다는 사회적 질서, 보편적 기준이 중요하다. 민족성과 사회주의 도덕률에 맞추어 화려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에서 여성은 ‘꽃’으로 비유한다. 여성은 가정의 꽃이요, 사회의 꽃이요, 국가의 꽃이다. 꽃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다하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다.³²⁾ 북한에서는 색조 화장은 지양하는 편이고, 스킨, 로션 정도의 기초 화장이 대중화 되어 있다. 특히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는 것은 ‘비사회주의 행위’로 인식한다.

질은 색조 화장보다는 자연스러운 화장, 연한 화장을 선호한다. 사회의 시선 때문이다. 성인 여성에게 화장은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로 언제나 화장을 했다. 북한에서는 색조 화장은 지양하는 편이고, 스킨, 로션 정도의 기초 화장이 대중화 되어 있다.

결혼식 신부 화장은 특별한 경우이다. 일반적인 화장법은 2017년에 출판한 길수미의 『화장과 우리 생활 : 누구나 아름다워질수 있다』를 보면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³³⁾

첫째, 화장은 은은한 색채로 해야 한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화려하고 사치한 것보다 소박하면서도 고상하고 은은한 색채를 더 좋아하였다.

32) 남성욱, 「북한의 주체미학과 화장문화(Makr-up)에 관한 연구: 화장행태와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제18권 3호(한국평화연구학회, 2017), 80쪽.

33) 『화장과 우리 생활 : 누구나 아름다워질수 있다』(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둘째, 화장도 역시 우리 인민의 민족적 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낡은 화장방법을 추구하거나 반대로 현대미를 둔둔다고 하면서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방식을 지향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화장법은 피부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화장은 때와 장소에 맞게 하여야 한다. 때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화장을 하고 다니거나 화장을 하지 않고 다니는 것도 례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화장은 직업과 나이에 맞게 하여야 한다. 직업과 나이에 맞게 화장을 하면 사람은 더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인품 또한 돋구어진다. 화장은 계절에 맞게 하여야 한다. 사람의 피부조건과 생리적 상태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넷째, 화장은 얼굴 생김새와 입는 옷의 색깔에 맞추어야 한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서로 다르고 기호와 취미, 입는 옷의 색깔, 형태 또한 서로 다르다. 때문에 남들이 하는 화장법이 아름답다고 하여 그 화장법에 자신의 얼굴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화장은 자기의 얼굴에 화장법을 맞추어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설 수 있다.

화장에서 민족적 특성과 사회적인 의미가 강조한다. 계절과 잘 어울려야 하고, 피부와 잘 어울려야 한다.

사회주의 생활양식은 화장을 건전하고 고상한 문화가 반영되게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장은 사회주의 사회의 생활양식과 민족적특성, 시대적미감에 맞게 하여야 한다.

우리 식이 아닌 변태적인 화장은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³⁴⁾

‘이색적인 방식’ 이어서는 안 된다. 꽃처럼 아름답지만 화려하지 않은 화장이어야 한다. “우리 식이 아닌 변태적인 화장은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진하게 화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나고 도덕적으로도 몰상식한 현상으로 평가한다. 북한에서 화장품 역시 근로자들의 생활을 문화 위생적으로 가꾸며, 건강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2. 사랑의 선물 화장품과 국가 서사

김정은 시기 이전까지 화장품은 사랑의 선물이었다.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서

34) 길수미, 『화장과 우리 생활 : 누구나 아름다워질수 있다』(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8쪽.

화장품은 당의 은덕을 상징하였다. ‘3.8부녀절’을 비롯하여 국가의 주요 명절에 당에서 특별하게 배려한 사랑의 선물이었다.

여류시인 럽형미는 화장품을 받은 기쁨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안해를 더없이 사랑하는 남편들도
 꿈에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
 어찌다 안겨주는 한송이 꽃에도
 귀뿌리 붉어지는 소박한 녀인들에게
 지난해 3.8국제부녀절에는
 얼마나 큰 행복 파도쳐왔던가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그 많은 일, 그 먼 전선길 다 미루시고
 녀성근로자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명절경축공연을 함께 보아주셨나니
 봄향기화장품까지 한아름 안겨주셨어라³⁵⁾

선군시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김정일장군님께서 그 많은 일, 그 먼 전선길을 다 미루고 여성근로자들의 친아버지가 되어서 경축공연도 함께 보아주시고, 봄향기화장품까지 안겨주신 김정일 장군님을 노래했다. 3.8국제부녀절을 맞이하여 여성 근로자들을 생각하고 화장품 선물을 주기로 하였다. 장군님의 사랑이 담긴 화장품을 실은 특별열차가 밤새워 달렸고, 김정일장군님은 새벽 3시에 열차를 마중 나가셨다.

김윤걸·박종철, <(장시) 백일낮, 백일밤>, 『로동신문』(2012. 03. 25)에는 3·8 부녀절에 사랑의 선물로 ‘봄향기’ 화장품을 선물 받은 기쁨을 노래한 구절이 나온다.



▶ 럽형미, <선군시대 녀성의 노래>, 『조선문학』 2009년 8호, 김윤걸·박종철, <(장시) 백일낮, 백일밤>, 『로동신문』, 2012.3.25.

35) 럽형미, <선군시대 녀성의 노래>, 『조선문학』 2009년 8호.

최고지도자의 인민을 향한 사랑의 선물인 봄향기화장품은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한다. 신의주화장품공장 역시 최고지도자들이 대를 이어 찾은 곳이다. 북한에서 문학이 감당해야 할 몫의 하나는 서사를 창조하는 것이다. 국가가 지향하는 서사를 감동적으로 만들어 낸다. 화장품에도 스토리가 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절절하게 담아낸다. 화장품 하나하나에 장군님, 원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보잘 것 없고, 비록 품질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작은 화장품에도 인민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는 최고지도자의 은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감격스럽게 보여준다.

최고지도자의 사랑이 담긴 봄향기 화장품은 어디서 왔을까? 소설 <봄향기>는 봄향기 화장품이 어떻게 개발되었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를 소개한다. 소설 <봄향기>는 『조선문학』 2009년 12호에 수록된 박혜란의 소설이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소재로 화장품 생산을 위해 애쓰는 과학자들의 피나는 노력을 줄거리로 한다.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청정수를 찾던 과학자들이 남신의주 석두산 샘물을 발견하는 이야기이다. 자연에서 무균수를 찾던 과학자들은 석두산 샘물을 화장품 원료로 이용하라는 김정일의 생전 모습을 떠올린다. 김정일의 뜻을 받들어 기어이 샘물을 찾아낸다.



▶ 소설 <봄향기>, 『조선문학』 2009년 12호, 예술영화 <봄향기>

소설 <봄향기>는 같은 제목의 예술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2005년에 제작한 영화 <봄향기>이다. 리학현과 김국성이 영화문학(시나리오)를, 전광일이 연출을 맡았고 황룡철이 촬영하였다.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후원하였다.

장군님이 일선의 한 부대를 시찰하였다가 치약을 집어 들고 유심히 살펴보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는 치약에서 치약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은 품질의 문제다. 아무리 음료수를 정제해서 쓴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화장품이 좋아지려면 물이 좋아야 한다’면서 ‘자연성 무균수(無菌水)를 찾아서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는 것을 모티브로 한다. 영준은 장군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균

성 샘플인데, 장군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샘플도 100% 완전해야 한다면서 밤낮없이 샘플을 찾아 나섰다. 마침내 영준은 석화산 형제바위 밑 샘플을 찾아 낸다. 형제바위 아래서 샘플을 파기 위해 밤새 일하다 모두들 지쳐 잠든 아침 샘플이 솟아나고 모두들 환호하는 가운데 지친 영준은 쓰러진다. 병실에 누운 영준을 바라보며 모두들 분석결과를 초조히 기다리는 데, 뜻밖에 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침 당에서 전화가 오고 장군님이 무균수에 관심을 갖고서 새로운 설비와 과학자들을 보내준다. 학원 연구실장은 장군님께서 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자꾸만 세균이 나오는데, 이것은 채취하여 오는 과정에서 온도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냉동탑차를 보내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라고 하였다.

봄향기에 대한 스토리는 동시에도 등장한다. 동시 <봄향기>는 『아동문학』 2018년 8호에 실린 강은경의 동시이다.

옛말에 나오는 고와지는 샘
 그 샘플로 우리 엄마 얼굴 씻었나
 《봄향기》 화장품 바르고 나서니
 세상에서 제일 고운 꽃이 됐어요

날마다 고와지는 울엄마 얼굴
 옛말의 수정샘 요술 부렸나
 아니아니 원수님사랑 끝업어
 정말 고운 울 엄마 얼굴이지요

무더운 여름날에도 겨울날에도
 찾고 또 찾으신 원수님사랑
 엄마들 누나들 얼굴에 비껴
 집집마다 봄향기 불러왔지요.³⁶⁾

소설 <봄향기>, 예술영화 <봄향기>, 동시 <봄향기>의 소재는 모두 하나이다.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 형태로 반복되면서 ‘봄향기’에 대한 하나의 서사를 기억하고, 공동의 기억이 생겨난다. 그렇게 화장품 하나에까지 집단적인 공통의 기억으로 조직된다. 그렇게 화장품은 지도자의 선물로 각인되었다.

36) 강은경, <봄향기>, 『아동문학』 2018년 8호, 22쪽.

3. 화장하는 인민

북한에서 화장은 자기 외모에서 부족한 점을 가리고 얼굴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위생 문화적으로 가꾸도록 하는 미용의 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화장은 일반 화장과 예식화장으로 구분한다.

일반화장은 얼굴에서 개성과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살리면서 회화적 수법을 이용하여 결함을 약화시키거나 감추어 주어 얼굴 생김새에서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예식화장은 머리, 목, 손 얼굴의 각 부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단장하며 예복의 형태나 색깔에 맞게 외모를 단장하여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결혼할 때 여성의 화장은 화려하다. 최근에는 결혼할 때 전문적으로 신부 화장을 받는 경우도 많아졌다. 신부 드레스와 화장을 세트로 하는데, 신부 화장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분들에게 의뢰하여 화장을 받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부 화장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예식화장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화장은 화려하지 않다. 화장이나 몸 가꾸는 것을 곧 그 사람의 정신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화장을 질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 날라리풍과 연결지어 생각하였다.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받았다. 그래서 얌전하고, 은은한 화장을 선호한다.



▶ 길수미, 『화장과 우리 생활 :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여성들의 기호와 특성에 맞는 화장품 생산을 지도한 최고지도자의 현지사적물(『로동신문』, 2020.3.8.)

북한 여성들이 화장하는 시기는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라고 한다. 고급중학교는 사회생활을 하는 마지막 과정이다. 사회생활을 위해 화장을 배우거나 사회에 나가면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의 화장 문화가 김정은 시대 이전과는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사회 생

활을 하는 여성이 갖추어야 할 도리 정도로 생각했던 것에서 “사람의 얼굴을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가꾸기 위한 색채예술의 한 분야가 되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개성을 표현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얼굴 유형이나 나이, 피부에 맞추어 화장을 잘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한 책자도 나왔고, 기능성을 강조하는 화장품도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북한 화장 문화가 달라졌다는 것은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으로도 확인된다. 『아동문학』 2018년 1호에 실린 류경철의 동시 <맷시쟁이 우리 누나>를 보면 화장하는 누나가 등장한다.

《은하수》 화장품이 참 좋은가 봐요
아까부터 우리 누나 거울앞에서
크림이랑 연지곤지 곱게 바르고
반달모양 눈섭까지 곱게 그려요

나도 교복입고서 맷시보고싶은데
거울앞에 그냥 서서 향수까지 착착
정말이지 우리 누나 맷시쟁이야
옷맷시에 얼굴맷시 배우보다 더 고와

굽실굽실 윤기도는 멋진 파도머리에
고착제³⁷⁾도 바르며 우리 누나 호호호
꽃같은 모습으로 거리에 척 나서면
온 거리가 환해지고 봄향기가 넘친다나

나도 좋아 해해해 할머니도 호호호
만리마 탄 혁신자로 소문난 우리 누나
원수님사랑넘친 고급화장품덕분에
꽃보다 더 예쁜 맷시쟁이선녀됐대³⁸⁾

류경철의 동시 <맷시쟁이 우리 누나>는 거울 앞에 앉아 ‘은하수’ 화장품을 바르는 누나를 바라보던 동생의 시선으로 쓴 시이다. 어린 남동생의 눈에는 화장한 누나가 맷시 있는 선녀 같다고 말한다. ” 윤기나는 멋진 파도머리에 고착제” 도 받았다. 멋쟁이 누나의 비결은 “원수님 사랑 넘친 고급화장품 덕분” 으

37) 헤어스프레이.

38) 류경철, <맷시쟁이 우리 누나>, 『아동문학』 2018년 1호.

로 끝난다. 원수님 덕분에 화장품을 바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2018년 『아동문학』에는 2호에는 김성희, <고와지는 엄마얼굴>이란 시가 실린다. ‘은하수’ 화장품으로 얼굴이 고와진 엄마를 그린 동시이다.

이 아침도 거울앞에
마주앉아서
화장하는 우리 엄마
얼굴을 좀 봐

샘물같은 《은하수》
살결물우에
분크림 발라가니
우유빛이야

... (중량) ...

그 얼굴 참말 예뻐
다시 엿보니
가슴뭉클 젖어드는
원수님사랑

엄마들 모두모두
고와지라고
《은하수》 화장품도
보아주셨지

봄날처럼 환해지는
온 나라 모습
질좋은 화장품에
담아주셨지³⁹⁾

엄마의 얼굴을 고와지도록 한 것은 원수님이 보낸 ‘은하수’ 화장품이었다. 예전에는 ‘봄향기’가 작품의 소재였는데, ‘은하수’로 바뀌었다. 작가의 선

39) 김성희, <고와지는 엄마얼굴>, 『아동문학』 2018년 02호, 37쪽.

택일까? 그럴리는 없다. 김정은 시대에는 ‘봄향기’ 보다는 은하수가 더 자주 언급된다. 동시의 소재가 된 ‘은하수’ 화장품은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브랜드이다.

봄향기, 은하수 이외에도 여러 브랜드가 개발되었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봄향기’, 평양화장품공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은하수’ 라는 공식도 깨어지고 있다. 같은 공장이라고 해도 브랜드를 달리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후발 브랜드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승부한다. 다품종시대의 풍경이다.

3.8국제부녀절을 맞이한 수도의 상업망들에서 여성화장품에 대한 수요와 인기가 매우 높았다. 평양제1백화점의 화장품 매대들도 많은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1,2,3층의 화장품 매대들에는 <봄향기>, <선녀>, <미래>, <은하수> 상표를 단 다종 다양한 화장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화장품들은 모두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 등에서 생산되는 국산품들이다.

1층 화장품매대의 류은경 판매원에 의하면 올해 명절에는 <봄향기>화장품과 함께 새로 개발된 <선녀>화장품들이 또한 큰 인기라고 한다. <선녀>화장품은 아름다움과 젊음, 건강을 담보해주고 있으며 선진기술을 도입한 효능높은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최고의 천연보습제인 히알루론산과 개성고려인삼성분 등이 들어 있다. 분크림, 살결물, 물크림 등은 미백, 보습, 광택, 영양효과는 물론 검버섯과 주근깨, 여드름 등을 제거하고 주름개선, 로화방지, 자외선방지를 비롯한 기능이 뚜렷하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평가이다.

중학시절의 옛 스승을 위해 <선녀>화장품을 고른 한 남성대학생은 <해마다 3.8절에 선생님에게 <봄향기>화장품을 선물하였다. 선생님이 보다 활력과 정력에 넘쳐 후대교육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바라며 올해에는 새 기능성화장품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다.⁴⁰⁾

남성들이 화장품을 사는 풍경도 새롭다. 국가에서 선물로 받는 화장품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상품으로서 화장품은 기능과 특성에 맞추어 골라야 한다. 인민의 입장에서는 상품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

김정온이 등장한 2012년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문명국을 국가 발전 목표로 내세웠다. ‘사회주의 문명국’은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국가인 동시에 인민이 사회주의 문명국의 혜택을 ‘향유’ 하는 사회이다. 인민들에게 물질문화 생활을

40) 「선물화장품 <봄향기>, <선녀>가 인기-3.8국제부녀절을 맞이한 평양의 상업망들에서」, 『로동신문』, 2017년 3월 17일

누릴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화장품도 인민들의 높아진 물질문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은 내 놓고 있다.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이 두해전 2월 몸소 공장을 찾으시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화장품의 본보기, 표준으로 될수 있는 새 제품들을 내놓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⁴¹⁾

<은하수>화장품은 최근년간 그 가지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 15년 김정은 원수님의 현지도도를 받은 후 품종은 50여종으로, 가지수는 160여가지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작년 10월 개건현대화되면서 현대적인 분석 및 측정, 실험설비, 생산설비들을 갖춘 나라의 화장품산업의 중심으로 전변되었다. 공장에서는 현재 59종에 169가지의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치료용화장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112종, 250여가지로 확대할 계획이며 나아가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세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품종들을 다 내오려는 높은 목표를 세웠다. 목주름개선화장품을 비롯한 부위별화장품, 각종 화장도구 등 그 영역은 매우 넓다.⁴²⁾

기업으로서는 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였다. 화장품도 경쟁이 되고 있다. 당에서도 의도적으로 기업의 경쟁을 유도한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이 독점하다시피 한 화장품 시장에 평양화장품공장이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했다. 평양화장품공장은 김정은이 몇 번에 걸쳐 현지도도를 했던 곳이다. 문학예술을 통해서 ‘은하수’ 브랜드도 띄우고 있다. 김정은이 평양화장품공장으로 달려간 이유는 무엇인가?

Ⅲ. 북한의 화장품 산업

1. 화장품 산업의 시대

시장이 커지면 산업이 된다. 시장에 물건이 엄청나게 잘 팔리면 공장에서는 그 물건을 많이 만든다. 계속해서 많이 만들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는다.

41) 「화장품공업발전을 추동해나갈 불같은 열의」, 『로동신문』, 2016년 3월 17일.

42) 「<은하수>와 더불어 더욱 문명한 생활을 - 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한 평양화장품공장」, 『조선신보』, 2018년 6월 15일.

김정은 시대에는 전에 없던 산업이 두 가지가 생겨났다. 서비스 산업과 소비재 산업이다. 서비스 산업을 통해 내부 경제를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좀 더 많은 돈을 내면 좋은 곳을 갈 수 있고, 좀 더 좋은 시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좋은 곳에서 즐기고 쉬고, 좋은 휴대폰을 갖고, 택시를 타고 다니며, 이탈리아 식당에서 스파게티를 먹고, 손전화기 앱으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돈만 있으면. 당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던 서비스를 산업화시켰다.

서비스와 함께 강조하는 것은 소비재 산업이다. 인민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소비재를 국산화하고, 품질 개량을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대외수출을 목표로 한다. 가장 먼저 선택한 영역은 담배였다. 중국산을 비롯하여 외국산 담배가 판치던 북한이었다. 이제는 북한산 담배가 시장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섬유, 생활용품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소비재 산업에서 화장품은 매력적인 선택이었다.

북한의 경제 환경은 그리 좋지 않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의 기술과 자원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식품, 섬유제품, 식음료, 생활용품과 함께 화장품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제조가 어렵지 않다.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격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도 있다. 휴대폰이나 자동차와 만큼의 차이보다 기능에서 차이가 적다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쓸만’ 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제법 된다.

현대화이자 국산화!

바로 여기에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을,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의지가 얼마나 힘있게 맥박치고 있는것인가⁴³⁾

북한이 강조하는 자력갱생의 차원에서 본다면 화장품만 한 것이 없다. 자력갱생, ‘국산화’, ‘자체의 힘’으로 등등의 구호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결론으로 돌아온다. 내수 시장은 애국심에 호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기반을 다지고 수출도 할 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를 뼈에 새기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 정책옹위전에서 무조건성만을 체질화한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에 떠받들려 우리인민들이 다른 나라의 것이 아닌 <은하수>상표를 단 우리의 화장품을 먼저 찾으며 행복의 웃음을 터칠 그날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⁴⁴⁾

43) 「현대화이자 국산화」, 『로동신문』, 2015.12.13.

북한의 화장품은 김정은 시대의 경제전략인 ‘원료, 재료의 국산화’, ‘현대화, 정보화’의 교시에 맞추어 세포줄기나 천연재료 등을 통해 원료의 국산화를 도모하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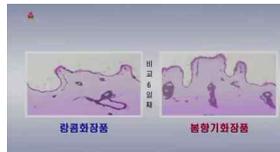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생물공학방법, 초립계류체추출기술에 의한 천연물질추출방법으로 미백제, 보습제, 로화방지제의 국산화를 실현하였다. … 이 시각도 세계적으로 화장품생산분야에서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화장품속에 들어있는 각이한 성분들을 리상적으로 결합시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기술경쟁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이와 함께 생물학·유기화학·무기화학·식물학·미생물학·생화학 등 각이한 전공분야의 지식을 소유한 쟁쟁한 인재들로 공업시험소를 꾸리고 《봄향기》화장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분석설비들을 부단히 보충, 갱신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였다.⁴⁵⁾



▶ 품질인증을 내세운 봄향기화장품 팜플릿

화장품 개발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알리기도 한다. “얼마전 화장품공업에서 세계적으로 앞섰다고 하는 어느 한 나라의 화장품과 우리 《봄향기》화장품의 로화방지기능을 대비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 화장품의 질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⁴⁶⁾고 소개도 하였다.

사실일까? 『로동신문』이 보도한 ‘세계적으로 앞섰다고 하는 어느 한 나라의 화장품’은 프랑스 랑콤 화장품이다.



44) 「화장품공업발전을 추동해 나갈 불같은 열의-평양화장품공장에서」, 『로동신문』, 2017년 3월 15일.

45) 「<봄향기>에 비긴 우리의 힘」, 『로동신문』, 2016년 2월 16일.

46) 「<봄향기>에 비긴 우리의 힘」, 『로동신문』, 2016년 2월 16일.



▶ **봄향기 화장품과 랑콤화장품의 노화방지 기능을 비교한 영상**

2. **화장품 종류**

화장품은 화장하는데 쓰는 용품으로 크림, 분, 향수와 같은 물품을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이다. 화장품의 용도에 대해서는 ‘살갓(살결)을 부드럽게 하려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생김새를 달라 보이게 하려고 쓰고 있다’ 고 설명한다.



▶ **금강산 브랜드의 4세대 기능성 화장품 광고, 봄향기 화장품 광고**

북한에서는 화장품을 어떻게 분류할까? 2016년 3월 17일 자 『로동신문』에서는 평양화장품 공장을 소개하면서,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효능과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효능에 따라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치료용화장품으로 구분한 화장품분류체계는 사용부위와 사용목적, 기능성정도, 치료효과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또한 제품형태에 따라서도 유화물형, 액형, 겔형, 기름형 등 10여 가지로 또다시 분류” 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북한 화장품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쓰임에 따른 분류이다. 쓰임에 따라서 크림류(화장크림, 영양크림, 면도크림 등), 향수(일반향수, 머리향수, 위생향수, 산포향수 등), 살결물 및 화장수류(일반화장용 살결물, 면도용 살결물 등), 향분류(화장분, 려발분, 무대분, 땀띠분 등), 연지류, 머릿기름 및 기타 머리화장품, 화장비누 등이 있다.

둘째, 완제품의 조성구와 특성에 따른 분류이다. 물 및 알콜계화장품(향수류, 살결물류, 화장수류 등), 기름계화장품(크림류, 머릿기름류, 입술연지류, 비누류 등), 탄산염 및 농마계 화장품(향분류, 치분류, 불연지류), 특수화장품(위생용화장품, 분장용화장품, 무대분장용화장품, 의약용화장품 등)으로 나눈다.

셋째, 특수화장품이다. 무대분장용 화장품과 의약용 화장품, 위생용화장품 등이 있다. 이들 화장품은 화장품공장들에서 대량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목적에 맞추어 생산한다. 무대분장용 화장품은 무대에서 배우들의 분장을 위하여 만들어진다. 의약용 화장품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신체의 특정 부분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다. 위생용 화장품은 외부환경, 대기, 미생물의 작용으로부터 살갓, 머리칼, 이발 등을 보호하며 그것들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만든다. 이런 화장품에는 치약, 살갓보호크림, 햇빛방지크림, 약용크림 등이 있다.



▶ 화장품의 종류와 효능을 설명한 봄향기 화장품 사용설명서

3. 기초화장품

살결물과 크림

기초화장품으로는 살결물이 있다. ‘살결물’은 스킨의 복한식 표현이다. 살결물에는 수렴성살결물, 보습성살결물이 있다. 알루론산, 향료를 주요 원료로 한다. 살결물은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주고 고려약활성성분들이 피부의 깊은 층까지 신속히 침투되어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있게 해주며 노화를 지연시키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적당한 양을 얼굴과 목 부위에 골고루 바르고 가볍게 두드려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봄향기 화장품의 살결물, 물크림세트, 제품의 성분과 효능을 표기한 봄향

기 브랜드의 크림

크림은 기본 화장을 위한 바탕화장품으로 피부호흡에 지장 없이 영양보호막을 형성하여 냉, 온, 습기, 유해가스, 먼지, 자외선으로부터 살결을 보호하여 피부 탄력, 노화방지 작용을 한다. 살결물을 사용한 후 적당한 양을 균일하게 바르는 것을 권장한다.

머리영양물과 미백영양물

머리영양물은 머리피부와 머리칼을 보호하는 화장품이다. 화장품 설명서에는 머리영양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머리피부와 머리칼을 보호하고 비듬과 탈모를 방지하며, 머리카락에 광택을 준다. 머리를 감은 후 또는 일상적으로 적당량을 머리피부와 머리카락에 골고루 바르고 머리를 빗는다.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봄향기 화장품 7종세트 구성품 중에서 살결물과 머리영양물

미백영양물은 피부에 영양분을 주는 스킨의 하나이다.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보충하고 멜라닌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를 맑고 밝게 하면서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 소개한다. 살결물(스킨)을 바른 후 적당한 양을 가볍게 안마하여 흡수시킨다.

4. 화장품 원료

개성고려인삼

북한 화장품에서 가장 폭넓게 많이 사용하는 원료의 하나는 ‘개성고려인삼’이다. 기능성을 강조하는 제품이 많아서인지 브랜드에 상관없이 개성고려인삼을 강조한 제품이 많다. 신주화장품 공장의 ‘봄향기’ 화장품을 비롯하여, 은하수,

금강산, 미래 등의 북한의 주요 화장품 회사에서 ‘개성고려인삼’을 이용한 제품을 볼 수 있다.



▶ 개성고려인삼을 원료로 한 봄향기 살결물(스킨) 화장품, 은하수 개성고려인삼화장품, 금강산 개성고려인삼 미안막(마스크팩)

사과

화장품 생산이 다양해지면서 사과를 이용한 제품도 있다. 김일왕의 시 <돌고장의 사과덕이야기>에는 사과향수, 사과린스, 사과샴프가 나온다.

옛날에 기묘한 돌 셋이 솟아
 고장이름 삼석이라 불렀다오
 삼석에도 돌이 많아 소문난 도덕땅에
 오늘 돌보다 사과가 더 많은 고장
 그 고장에 며느리가 산다오

...(중략)...

사과향수 사과린스 사과샴프...
 백화점 화장품매대 그대로인 듯
 어느 백화점에서 사왔느냐고 불었더니
 아니라오 이렇듯 멋쟁이상품
 며느리네 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만든것이라오⁴⁷⁾

사과향수, 사과린스, 사과샴프를 며느리네 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만들었다고 자랑한다. 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만들었다는 게 좀 이상하다. 과일공장이지만 제품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47) 김일왕, <돌고장의 사과덕이야기>, 『조선문학』, 2011년 11호, 41-42쪽

젤라틴

젤라틴도 화장품 재료로 널리 쓰인다. 「젤라틴과 그 리용」이라는 『로동신문』 2017년 12월 3일자 기사에서는 젤라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젤라틴은 동물의 가죽, 뼈, 힘줄 등의 주요 구성성분인 콜라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여 얻은 단백질이다.

젤라틴은 식료공업과 화장품공업, 의학부문에서 기능성 식품과 기능성화장품의 담체로 쓰이고 있으며 제약재료로 널리 리용되고 있다. 젤라틴제품은 미세가루, 얇은 막형태 등으로 생산되며 인체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여러 종류의 미량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 라틴은 화장품공업에서 물크림, 살결물을 비롯한 고급화장품의 첨가제로 적극 응용되고 있다. 최근년간 우리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연구 집단은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젤라틴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거두었다.⁴⁸⁾

경제적으로 화장품 공장을 현대화하고 원료를 국산화하여 질 좋은 화장품을 생산하여, 대내외적으로 공급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장미, 녹차, 알로에

금강산 화장품 중에는 장미세트가 있다. 장미꽃을 이용한 화장품이다. 장미는 최근 뜨고 있는 소재이다. 미래과학자 거리에 있는 ‘류경장미원’은 장미수를 이용한 목욕을 기본으로 사우나, 이발소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름만큼이나 장미를 이용한다. 장미수목욕도 하고, 청량음료점에서는 장미꽃차와 장미아이스크림도 맛볼 수 있다. 화장품의 원료도 사용한다. 녹차화장품은 미래화장품 제품이 있다.



▶ 금강산 장미세트 화장품, 금강산합작회의 알로에 미안막(마스크팩), 미래화

48) 「젤라틴과 그 리용」, 『로동신문』, 2017년 12월 3일.

IV. 나가는 말

북한에서 뷰티는 김정은 시대의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주의 문명국과 함께 경제 분야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비스와 내수시장을 살리고, 이를 발판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화장품은 내수와 수출을 잡을 수 있는 관심분야이다. 재료를 개발하고, 제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방향 속에서 북한의 뷰티는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화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사회주의 문명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이야기한다. 화장하는 인민을 위한 새로운 화장품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품질 향상, 새로운 원료의 개발, 품질관리의 국제인증, 특허제품을 통해 수출도 불을 붙이고 있다. 북한 자체의 기술과 원료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책적인 지원도 적극적이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목표로 한 김정은 체제 이후의 변화이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는 목표는 김정은체제에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2019년을 기점으로 대외적인 환경이 급변하였다. 국제화, 세계화의 정책은 하노이 노딜 이후로 주춤하고 있다. 정면돌파전으로 돌파를 선언한 2020년은 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는 여전하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는 대외무역의 창구를 온전히 막아버렸다. 식량상황도 여의치 않다. 2020년 봄 가뭄, 여름 홍수, 가을 태풍이 있었다. ‘사회주의 진지 수호’ 라는 절박한 구호를 전면에 내 걸었다. ‘고난의 행군’ 을 각오했다는 말이 김정은의 입에서 나왔다. 내부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천리마시대를 회고하는 기사로 『로동신문』을 채우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가 조금씩 인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리마시대를 포기하고 다시 천리마시대로 갈 것인가는 결국 경제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토론문]

‘공화국 립스틱’ 으로 본 북한의 여성 문화(전영선)

모리 토모오미 49)
(세츠난대학교 준교수)

이 발제문은 북한의 화장 문화 및 화장품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분석한 것이다. 발제자인 전영선 교수는,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 화장품 개발과 제조 현황 및 수출 노력을 기반으로 북한 사회에서의 화장 문화 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발제자는 북한의 사회적 미감에 대해서 설명하고, 북한의 화장 문화에 관한 중요한 1차자료인 ‘화장과 우리 생활: 누구나 아름다워질수 있다’를 참고로 북한 화장의 규범과 방법을 해설했다. 본 토론자의 수차례 방북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실제로 북한 여성들은 이 규범과 방법에 따른 화장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발제자는 북한 당국이 문학 예술 작품을 통해서 화장품을 홍보하는 현상도 정리했다. 이러한 홍보 방법은 북한이 자주 행하는 것이지만, 본 토론자도 구체적인 사례를 자주 접하지 못 했기에 때문에 발제자의 정리가 매우 유익했다.

발제문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코멘트:

1) 발제문에 따르면 북한 화장 문화의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화장 문화를 분석한 가장 선두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 발제문에서 언급된 바에 의하면, 북한은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나 중국으로의 수출은 물론이고 이란이나 키프로스 및 호주까지 수출 중이다. 50)

49) Tomoomi Mori / Associate Professor, Setsunan University, Japan tomoomi.mori@setsunan.ac.jp

50) Minwoo Park, ‘Move over Chanel: North Korea’s ‘raccoon eye makers’ get state push’, August 8, 2019,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cosmetics-idUSKCN1UY01H>

‘北朝鮮の“国産化粧品”が注目される理由’, 日本テレビ, 2019년 8월 30일

<https://www.news24.jp/articles/2019/08/30/10491064.html>

Fan Lingzhi, ‘North Korean factory aims to compete with Chanel and Shiseido on quality and safety’, September 17, 2018, 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119909.shtml>

3) 북한 화장품 공장은-발제문에서 언급된 랑콤 뿐만 아니라 샤넬이나 시세이도의 제품과도 성분 비교 연구를 실시하여 제품 질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51)

질문:

1) 화장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 특히 사회학적 연구는 이미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다. 특히 본 토론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화장 문화의 위상에 깊은 관심이 있다. 북한의 화장 문화(또는 북한의 사회주의 미감)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화장 문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본 토론자는 현재 북한의 화장 문화와 비교할만한 대상으로 구 소련의 화장 문화, 또는 개혁/개방 전 중국의 그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52)

2) 북한의 공식적인 화장 규범과 방법에서 화장의 주체는 여성임을 전제인 듯 하며, 남성용 화장품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 남성용 화장품은 존재하며 남성도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를 관리함은 사회 생활에서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남성용 화장품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적다면 그 현상은 어떤 사회주의 미감에 기초하는가?

3) 화장품은 크게, 기초 화장품(skin care products)과 색조 화장품(cosmetics)으로 나뉘어진다. 발제문에서는 화장품 내용의 대부분을 기초화장품으로 다루고 있고 색조 화장품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는데 그 이유가 알고 싶다.

4) 위 질문과 일부 관련되는데, 기초 화장품이 피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편, 색조 화장품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3)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여 메이크업 (make-up)를 함은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를 누리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색조 화장품 제조를 활성화하여 다양화하면, 이후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민의 욕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현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원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사회주의 미감에도 모순된다. 이로 인해 북한은 색조 화장품 개발을 활성화하지 않고 기초화장

51) Fan Lingzhi, 'North Korean factory aims to compete with Chanel and Shiseido on quality and safety', September 17, 2018, 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119909.shtml>

52) エカテリーナ・シネリシチコワ, '有名人が綴ったモスクワの奇妙なこと 8選', 2020년 5월 2일, RUSSIA BEYOND <https://jp.rbth.com/arts/83646-y%C5%ABmeijin-ga-tsudzutta-mosukuwa-no-kimy%C5%8D-na-kot>

53) Stella Ko, 'Beauty is freedom': The North Korean millennials wearing makeup to rebel against the state, March 3, 2020, CNN <https://edition.cnn.com/style/article/north-korea-womens-beauty-freedom/index.html>

품 제조에 집중한다고 본 토론자는 분석했다. 발제자는 이 분석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는지 궁금하다.

5) 발제문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북한 화장품(봄 향기, 은하수 등)의 가격을 알고 싶다. 일부 기사에 의하면 상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다. 54) 또 국내용 가격과 외국 수출용 가격 차이의 여부도 존재하는가?

6) 기초 화장품을 개발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 관계자, 특히 피부과 전문의와의 연계와 임상 실험이 중요하다. 북한의 화장품 공장과 의료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7) 환구시보(Global Times, 環球時報) 기사에도 언급됐지만,⁵⁵⁾ 현실적인 면에서 북한산 화장품의 품질이 향상되더라도 북한산 화장품의 외국 수출 증대와 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의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와 상품 경쟁력이 관련된다는 이유로써 본 토론자도 이와 같은 의견이다. 화장품의 품질 향상과 동시에 국가 이미지 쇄신이 동반돼야 상품의 수출 증대가 가능하리라 본다. 이는 부분적으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문제이기도 하다. 적당한 사례가 바로 한국의 화장품과 한국의 문화 콘텐츠(K-pop이나 드라마)의 시너지 효과이다. 이 부분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이 궁금하다.

54) Fan Lingzhi, 'North Korean factory aims to compete with Chanel and Shiseido on quality and safety', September 17, 2018, 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119909.shtml>

Cao Siqu, 'North Korean cosmetics firm gains attention from Kim's factory visit', July 3, 2018(Last Updated), 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109205.shtml>

Jung Da-min, 'North Korean cosmetics popular in China: report', Aug 9, 2018(Last Updated), The Korea Times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18/08/103_253552.html

55) Cao Siqu, 'North Korean cosmetics firm gains attention from Kim's factory visit', July 3, 2018(Last Updated), 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109205.shtml>

[토론문]

‘공화국의 립스틱’ 으로 본 북한의 여성 문화 (전영선)

이지순 (통일연구원)

북한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변화의 동력은 무엇인가?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북한의 변화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연구는 대북제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방향성을 뷰티와 화장품으로 풀어낸 점에서 참신하게 수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문화 가운데 뷰티와 화장품으로 북한의 산업과 경제 변화, 문화와 사회의 변화 요인, 더 나아가서 대외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화장품, 즉 뷰티는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김정은 체제의 국가건설목표, 국산화를 앞세운 자강력제일주의와 다종다양한 상품생산과 경쟁, 사회주의 미감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를 향한 인민들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론자 또한 “뷰티와 화장품은 왜 김정은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을까”를 퍼즐 풀 듯 찾으며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발표자의 원고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두서없이 나열하며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화장을 예의와 도덕으로 보고, 화장의 기준을 사회주의 미감으로 본다는 북한의 관점은 ‘화장하기’와 ‘화장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예의와 도덕은 곧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의와 도덕’으로 범주화된 여성의 화장은 ‘얼굴’을 강조하며 동시에 여성의 신체를 미적으로 전시하고 몸 가꾸기를 부가가치 산업으로 치환하는 자본주의적 발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의와 관련해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장을 예의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화장을 예의로 보는 것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관점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성차별로 보는 인식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개인의 기호와 선택에 따른 것이지 사회적으로 하라는 것 자체가 억압이자 통제라는 의견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오히려 국가와 사회가 예의

로써 화장을 장려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화 단계를 거치며 여성들의 경제참여가 늘어나면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을 갖춘 여성이 증가하게 된 상황과도 관련될 것 같습니다. 소비주체로 급부상한 여성의 표현 욕구를 국가가 인정하고 화장품 산업의 부흥으로 화답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의’를 통해 여성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상황이 북한의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려는 기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화장을 예의로 보는 관점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은 여성이 자신의 미를 표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회주의 미감으로 통제되는 화장법은 표준적인 미를 만들려는 것이 아닐까요?

이에 보충적으로 덧붙여서 ‘민족적 특성’에 맞는 화장의 최고 모델은 누구 일까요? 북한의 공중파에서 송출하는 예술인들은 무대화장이라는 특수한 화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족적 특성에 맞게 화장한 모델은 누가 있을까요?

셋째, 사회주의 미감으로 통제하는 경향은 외부문화 유입에 대한 경계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에서 젊은 세대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감각으로 유입되는 외부문화를 완전히 막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를 일부 발산하도록 하고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를 화장품 산업의 동력으로 순환하도록 이끄는 장치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덕의 관점에서 화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의 화장하기가 예의로 규정되지만, 화장을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곧 ‘변태적인 화장’ 또는 ‘이색적인 화장’에 대한 터부시입니다.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리는 ‘변태적인 화장’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화장을 질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 날라리풍”으로 연결지어 생각한다고 할 때, 과연 질게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둘째, 도덕적으로 퇴폐적이라 일컬어지는 변태적이고 이색적인 화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색적이고 변태적인 화장은 외부에서 유입된 자본주의식 화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진한 화장을 ‘불온성’으로 판단하고 규제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질문과 좀 상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주의 미감이 표준적인 미를 만들고자 한 기획이지만, 다종다양한 화장품 생산은 차별화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과도 관련되지 않을까 합니다. 북한의 MZ 세대들은 화장법에서, 경제력을 갖춘 기성세대들은 화장품 소비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화장품 브랜드 가운데서 세대별로 선호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계층에 따른 구매력의 차이를 보이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북한의 MZ 세대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신세대 문화의 핵심은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10대와 20대 여성들은 규찰대와 인민반의 단속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패션과 스타일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측면은 신세대 문화가 국가 중심의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문화와의 충돌이자 반발이 아닐까 합니다. 북한의 신세대 여성들이 화장과 화장품 소비, 특히 10대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화장과 화장품으로 인한 파생산업도 북한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전문적으로 신부화장을 받으며, 피부관리실과 메이크업 샵도 평양에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북한의 브랜드는 화장품과 대동강맥주이고, 수출품목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뷰티 산업은 분명 북한의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이며, 인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대의 신감각일 것입니다.

화장과 화장품에 대한 문학 작품들과 영상물, 언론의 기사와 김정은의 담화는 이미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국가 담론 이전에 폭넓은 저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장과 화장품에 담은 세계화와 현대화는 동시대적 감수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국가가 공식화함으로써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출하는 욕망을 사회주의 미감으로 통제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신세대들의 창조적인 개성과 자기표현 욕구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화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선호하는 립스틱 색깔은 무슨 색일까 생각하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일차
종합토론

[토론문]

코로나 시대, 북한여성의 미래: 위기 or 기회

현인애(이화여대)

북한의 남녀평등은 가부장적 국가구조하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북한 여성들은 남녀평등을 스스로가 아니라 당과 수령에 의해 선사 받았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없었다.

북한 여성은 1990년 이후 가부장적인 국가 구조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그를 위해 시장에 진입했다. 이러한 구조가 30여년 지속되면서 북한에서는 남성은 국가경제 여성은 시장경제로 분할된 2중적 성별 경제구조가 고착되게 되었다.

북한여성의 시장 활동은 매우 어렵고 고달픈 과정이었으나 이는 여성들에게 하나의 기회로 되었다.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게 되었고 돈이 여성들의 수중에 집중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여성들이 경제권을 가지면서 개인적 욕구를 느끼게 되고 그를 위해 돈을 지불하게 되었고 사적 욕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듯 북한 여성의 미래는 시장의 존재와 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시장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은 당국에 있다. 최근 북한당국은 코로나를 사회주의국가경제를 희생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1년 사회주의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로 규정하고 자력갱생을 통한 사회주의경제체제 복귀를 다그치고 있다. 국경 봉쇄 때문에 외국에서 원료 자재가 들어오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을 내부 경제 회복의 기회로 바꾸려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70~80%가 외국에서 수입되고 북한에서 생산된 상품도 원료 자재를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1년 반 지속되는 국경 봉쇄로 시장에서 상품이 말랐을 것이고 이로 인해 시장상인들은 거의 장사를 접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내 수공업자들도 원료 자재의 부족으로 생산을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북한당국의 사회주의국영경제 복구, 각종 건설로 여성들의 동원이 배가되었을 것이고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노력 동원에 직접 참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고 주민들의 생계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국영경제 복귀는 여성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의도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회주의경제 복귀 정책은 실패로 화폐개혁처럼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북한지도부는 다시 시장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으로 복귀할 것이고 여성들의 시장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북한지도부가 앞으로도 성별 분업에 기초한 2중경제구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고 자기의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립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여성 의식을 강화하고 능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될 것이다. 그 과정에 여성은 스스로 자기의 해방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정권 등장 이후 김여정 현송월 같은 여성들의 등장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여성 해방과 큰 연관이 없다. 지난 시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남성의 대표자, 가부장적 국가 구조의 대표자인 수령은 여성을 해방시켜 줄 수 없다.

[토론문]

코로나 시대 북한 여성의 삶

조정아(통일연구원)

□ 북한 여성의 삶과 젠더정치

-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의 중심에 여성이 있음.
 - ‘고난의 행군’ 시기, 공장이 멈추고 배급이 중단되면서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국 각지로, 때로는 국경을 넘어가며 생존을 위한 활동에 나섰고, 국가와 가부장을 대신하여 온가족의 생계를 짊어짐.
 - 2000년대 이후 시장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 작동방식을 터득한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공식경제구조 외부에서 시장경제의 주요 주체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됨.

-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할 변화와 가족생활의 물질적 토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 및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가구주인 남성의 배급이나 임금으로 가족의 생계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가족 생계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가구주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가족 내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부부 관계, 가족관계에 관한 인식도 변화
 -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가족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수준은 아니지만,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절대적 순종’이라는 규범은 약화되고 있음.
 - 가족들이 여성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남성들이 공동 운명체인 가족의 생계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변화된 성역할을 수용하기도 함. (“칼자루가 여자한테 쥐어져 있는” 상황)

- 한편, 경제적 이윤 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남성이 담당하는 공식노동 영역에 주어지며, “남성=공식노동, 여성=비공식노동”이라는 이 위계적 성별분업 체계가 김정은 시대 젠더정치의 구조적 토대로 작동하고 있음.
 - 여성들이 비공식부문(시장경제)에서 수행하는 노동은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런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부양’을 호명됨.

- 사회적 노동영역 내에서도 여전히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가 존재하며, 이는 북한 여성들은 공식노동 부문에서 직업생활과 사회적 성공 대신 시장경제 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공을 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책적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적 노동이 장려되고, 전문직 분야의 여성 진출도 강조되고 있지만, 북한 여성들은 전문직이나 고위급 간부 여성들의 활동이 “장식용 병풍”을 크게 벗어날 정도가 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결혼한 여성들은 스스로 공식노동 영역에서 성공하기보다 ‘남편 출세시키기’를 통해 시장경제활동 보호를 위한 ‘빡’을 만드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함.

o 북한 여성에게 결혼은 가사노동과 시장경제활동의 병행, 시장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단속과 통제 및 여맹과 인민반 등 조직생활의 삼중고가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미루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젊은 세대 속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성 가부장의 종속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족관계를 모색하는 동시에, 결혼 기피, 등록 연기, 이혼 등을 통해 북한 사회의 제도적 통제를 우회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모습이 두드러짐.
- 북한의 새 세대 여성들은 사회주의대가정의 구성원이기보다는 물질적 욕망과 행복, 미래에 대한 기대,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성장시키고 있음.
- 외부사회에서 유입된 영상물도 결혼과 가족관계와 관련한 여성들의 사고와 실천에 영향을 주고 있음.

o 북한 당국은 여성권리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고 전문성을 갖춘 노동력으로서 여성의 역할과 사회활동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하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더하여 여성의 모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을 가부장적 가족구조로 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여성들의 결혼관 변화는 최근 북한당국의 여성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음. 2021년 6월에 개최된 사회주의여성동맹 제7차 대회 서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출산과 기혼여성들의 사회적 노동을 언급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여성들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하는 기풍을 확립하여 국가적인 보장 대책도 강화”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음.
- 북한에서 위로부터의 젠더정치와 젠더담론, 정책은 국가의 강압이 아닌 스스로 규율하고 현실과 욕망을 조율하며 행위하는 여성들의 실천, 자신과 가

족의 생존을 확보하고 욕망을 실현하려는 여성들의 전략을 통해 구현됨.

- 경제난 이후 젠더 정치의 지형을 바꾸어낸 원동력은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위한 여성들의 실천임. 여성들의 실천은 위로부터의 젠더정치와 젠더체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 그것에 도전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지님.
 - 특히 새 세대 여성들의 젠더수행은 기존 젠더정치에 균열을 일으키는 저항의 발화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 팬데믹과 북한 여성의 삶

- 북한당국은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나, 민간단체에서는 북한 사회 내부의 전언에 근거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노동신문에서는 2020년 2월부터 방역 관련 기사를 계속 게재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기사 빈도가 더욱 높아짐.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고용불안,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와 소득위기, 가정폭력, 돌봄위기 등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겠지만, 북한에서도 확진자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이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의 젠더화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팬데믹에 따른 국경폐쇄와 사회통제 강화는 공식경제 영역보다 여성들의 주된 경제활동 영역인 시장경제활동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국경폐쇄로 인한 북중 밀무역 중단과 국내 시장활동 축소, 물가불안정성 심화에 따라 여성들의 시장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코로나 확산 우려에 따른 이동 제한, 조직생활 강화 등 사회통제 강화도 여성들의 시장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학교는 방학이 연장되고 원격교육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공교육 기능 마비로 인한 돌봄위기보다는 여성들의 시장경제활동 축소로 인한 가계소득위기 문제가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여성들의 시장경제활동 축소는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 축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여성들의 가정 내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특히, 빈곤계층 가정의 경우, 여성들의 시장경제활동 축소는 가족구성원의 생계곤란과 가정폭력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함.

[토론문]

코로나 시대, 기로에 선 북한 여성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북한의 코로나19 현황

○ 코로나19 상황: ‘확진자 0명’의 청정국 북한?

- 북한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0명, 노동당·국가기구 회의 노마스크
- 이광백 UMG/DailyNK 대표의 발표문에도 보듯이 확진자, 사망자 발생

○ 코로나 방역: 국가안보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총력대응

-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 발생, 2020년 1월 25일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매우 빠른 국경 폐쇄조치 단행
- 2020년 외국인 관광 중단(1.22), 국경 폐쇄(1.25),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원 철수(1.30), 격리 기간 14일에서 30일 연장(2.23) 등
- WHO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북한 ‘위생방역체계’에서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상향 조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

○ 코로나 백신 도입

- COVAX는 2021년 5월까지 852,000명분(1,704,000회분) 제공 계획, 미시행
- 중국산 백신 불신, 러시아 백신 도입 추진하나 미진전

2. 코로나 시대,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북한은 ‘先 대내, 後 대외’ 정책 추진

- ‘정면돌파전’을 유보한 채 주민 생활 안전을 통한 ‘버티기 전략’으로 선회
-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외 문제에 관심을 돌릴 수 없을 만큼 북한 내부 문제 심각

○ 코로나19와 대북 제재로 인한 위기 국면에서 체제 안정화에 방점

- 체제 안정화의 두 축은 경제발전과 정권 안정화이며, 이는 제재에 대한

‘버티기 전략’ 이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강요된 선택’

-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국경 폐쇄와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 심화
 - 2020년 북중 교역규모는 2019년 대비 80.7%가 감소한 5.4억불에 불과하였으며, 올해 1~4월 교역규모는 4,815만불로 전년 동기 2.5억불 대비 81%나 급감, 원자재와 생필품 부족 및 가격 폭등
 - 식량은 작년의 수해로 인해 약 100만톤 정도가 부족하며, 올해 1월 말부터 ‘절량세대’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
 - 당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6.15-18)에서 김정은은 경제난과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인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언급한 ‘특별명령서’에 서명
 - 6월 29일에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간부들의 ‘직무태만’과 ‘중대사건’을 이유로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주요 당 간부 교체(의주 비행장 방역참고, 전시비축물자-군량미 등)

3. 코로나 시대, 북한 여성의 삶

- 북한 여성의 역할: 생산자, 재생산자, 양육자
 - 1946년 7월 30일에 발표된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해 남성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국가적 활동과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주장
 - 사회주의 헌법 77조에 따라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 「여성권리보장법」, 「노동보호법」 등 법률상 남녀 평등 주장
 - 2015년 13기 최고인민회의 여성비율 20.2%, 2019년 14기에서는 17.6%, 그리고 지방인민회의에서는 25% 이상
 - 그러나, 정치국 위원(19)과 정치국 후보위원(11) 중 박명순(경공업부장) 1인
 - 달턴 박사의 말처럼, 북한에서는 ‘어머니’라는 범주는 존재하지만 ‘여성’의 범주는 거의 미인식, 국가 정치의 표면에서 젠더 개념 삭제
- 시장에서의 역할 확대: 가족의 생계 담당
 - 통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시장에서의 역할 확대, 가구 소득의 70% 이상 담당
 - 2020년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33,572명 중 24,317명 여성(72%)
 - 가부장적 사회의 영향: 남편은 공식 일터, 비공식 일터는 여성
- 코로나 19시대, 취약계층 특히 여성에게 큰 타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대규모 공사와 식량 증산을 위한 상시 동원체제로 인해 남성은 노력 동원 차출, 여성의 가족 생계 부담 증가
- 최근金正은의 육아 강조와 ‘개인 보모’ 근절 지시, 여성 노동력 동원을 위한 필수 조치
- 변경무역 종사자의 대다수 여성,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폐쇄로 심각한 타격
- 시장 역시 공급물자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위축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타격
- 북한의 취약계층을 보통 노인, 영유아, 여성이라고 볼 때, 코로나19는 노인과 영유아의 부담까지 여성에게 전가하는 상황 초래

//끝//

[토론문]

코로나 시대, 북한여성의 미래: 위기인가 기회인가

저스틴 V. 헤이스팅스(시드니대학교)

컨퍼런스의 발제문들은 김정은 시대에 정치 행위자이자 경제 주체로서의 북한 여성의 지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관점과 증거를 제시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너무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와 논의에서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토론문에서는 발제문들의 흥미로운 결론에서 시작해 여성과 북한 경제, 북한 사회에 대한 발제문의 의미를 논의해보려 한다.

경제 속의 여성

적어도 북한 경제의 비공식적 영역에서는 여성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이는 공식 정책이든 아니든 북한 사회가 국가가 모르는 곳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다. 북한에서 장마당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을 특징짓는 용어인 ‘장마당 세대’도 국가가 정한 것이 아닌 법에서 모호하게 허용되는 활동을 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북한 경제에서 구매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여성의 구매력 증가는 국가에서도 인정할 정도다. 화장품 산업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 경제와 북한 경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북한은 의도적으로 소비 시장에 경쟁을 도입했으며(신의주와 평양의 화장품 공장이 국유 기업이기는 하다) 비필수 소비재로 일컬어지는 제품의 보급을 장려했다. 여성이 이러한 소비주의의 표적 인구집단이라는 사실은 다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본질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와, 더 일반적으로는 제품 생산용 해외 원료 구매를 위한 외화 부족에 대응하여 본질적으로는 수입품 대체 정책을 장려해왔다. 이 정책의 아이러니는 어떤 면에서 국산 소비재의 보급을 위해서는 북한이 소비를 장려하고 국산 제품을 외국 소비재와 적어도 동등하거나 이보다 더 나은 것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좋은 예로 순수함과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는 북한의 화장품 마케팅을 들 수 있다.

북한 경제에서 ‘판매자’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떠한 경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심지어 한 가정에 속해 있더라도 두 개의 병렬경제에서 일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남성은 쇠퇴하고 본질적으로 기능이 멈춘 명령경제에 속해 있는 반면, 여성은 성장하는 시장경제에 속해 있다. 남성의 노동과 생산이 국가와 가정 어느 쪽으로도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성이 덜 가치있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 이러한 병렬경제에서 남성과 여성의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남성은 게으르고 여성은 근면함)은 병렬경제 참가자들의 행동을 반영한다.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 명령경제는 (상당한 강제 없이) 사회주의 노동 윤리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시장경제는 (관련 인센티브가 있는) 보다 생산적인 업무 윤리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지위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상승했으며, 이는 북한 전반의 경제적 생존에 대해 시장경제가 기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성의 시장참여는 여성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북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와 분리되거나, 적어도 국가에 의해 완전히 제한되고 정의되지 않는 존재가 있는 공적 영역의 발전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북한 시장의 비공식성(계약의 집행 및 분쟁 해결에서 국가의 부재, 모호한 합법성, 높은 숙청 가능성,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과 북한의 여러 상호 작용을 특징짓는 정보 부족과 낮은 신뢰 수준을 감안할 때 장마당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 신뢰할 수 있게 된 사람들과 사회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연결망은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과 사업 기회(또는 아래에서 다룰 기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사회연결망 내에 공무원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은 정치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분쟁 해결을 도울 뿐 아니라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다. 이러한 사회연결망과 이를 위한 행동은 초기 공공 영역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으며(이들이 실제로 완전한 시민 사회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는 없음), 아마도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연결망의 중심이 여성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외부 단체에서 제공하는 노래, TV 프로그램, 영화 및 북한과 외부 세계에 대한 뉴스 등의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기능을 한다. 북한 여성의 시장 참여로 인해 국가가 통제하는 공론장과 적어도 어느 정도는 분리된 공공 영역이 (아마도 우연히) 생겨난다. 여성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 판매 여부, 품질 이상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외부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이야기할 거리를 제공한다. 일상적인 이야기 소재는 지나치게 정치적이지 않아서 국가로부터 반발을 살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공공 영역을 구축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반란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자발적) 근본 개혁을 상정하는 것은 여성의 시장 참여가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일 수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성의 시장 참여는 경제 참여자로서 여성의 위상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기대하는 북한의 상태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비록 김정은 위원장이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지 않더라도(모든 징후는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북한 경제와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의 경제적(그리고 그에 따른 물질적) 생존을 위한 요구에는 응답해야 한다. 북한이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을 말할 수도 있지만 상황은 1990년대와 같지 않다. 현재는 국경 간 무역이 비교적 개방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당히 제도화되고 비교적 효율적인 시장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존재하며, 장기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

대유행병, 경제, 그리고 여성의 권리

그러나 단기간은 여성과 남성 모두 상당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을 뿐 아니라 정부가 증상이 있는 사람을 격리하고 국경을 봉쇄하고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가 시장과 여성 권리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이 바이러스 차단을 목적으로 국경간 이동(밀수업자 포함)을 단속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로 인해 국경간 무역과 공식 및 비공식 시장의 상품 확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도 분명하다. 여성이 비공식 시장 및 장사에 참여해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으면서 지위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코로나와 관련해 직간접적 통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의 단속은 소득과 식량 공급의 손실이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여성이 지금껏 쌓아온 사회적 성취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며, 이 둘 중 어느 것도 북한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첫째, 북한의 공식 경제는 명령경제의 전형적인 기능 장애와 제재 조치(당연히 국영 기업이나 공무원이 독점하는 무역 부문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더 높다)로 인해 침체 상태를 유지하며, 이는 가정 내 남성이 여성의 소득 손실이 없더라도 가장으로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코로나 동안 밀수 단속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정치권에 연줄이 있는 엘리트들이 무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한 이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시장화가 지닌 특수성으로는 비공식 시장(장마당)의 부상뿐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그리고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실제 경제 활동에서 만연한 기업가 정신이 꼽힌다. 정치권에 연줄이 있는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공식 직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징수하고 경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기생적인 존재이지만 이들 역시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유기업의 상당수를 남성이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 이후의 북한의 미래는 시장화가 더욱 제도화되고 국가간 무역의 많은 부분이 국영기업에 의해 지배되며, 따라서 비공식 시장과 이에 참여하는 여성을 배제할 것으로 상상해볼 수 있다.